



2011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7.15 ~ 10.8

드림파크 / 8.5(금)~8.7(일)

♪ **뮤직인아츠 페스티벌**

인천지역공연장 / 7.15(금)~10.8(토)

♪ 프린지 페스티벌

동인천&부평 일대 / 7.17(토)~8.27(토)

♪ 한류관광 콘서트

문학경기장 / 8.13(토)

♪ 세계청소년동아리 문화축제

인천대학교 / 8.27(토)

www.pentaport.kr



Good Morning INCHEON

Good Morning INCHEON

2011 / 8

Focus 평창동계올림픽

Zoom In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

지상전시 제1회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

Enjoy Incheon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2011 / 8

Incheon monthly magazine vol.212

| | |
|------------|--|
| 발행처 | 인천광역시 |
| 발행일 | 2011년 8월 1일 |
| 발행인 | 인천광역시장 |
| 편집인 | 대변인 윤관석 |
| 편집장 | 유동현(뉴미디어팀장) twitter.com/ihappyou |
| 취재 | 편집위원 이용남 twitter.com/yona1488 편집위원 정경숙 twitter.com/bluelou7 편집위원 김윤경 twitter.com/ice3333 |
| 사진 | 김보성 · 홍승훈 · 김성환(자유사진가) 심영보 · 하장원(시 대변인실) |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 62800000-84900-42-81 |
| 편집디자인 | 코인뱅크 T. 032-831-2336 |
| 인쇄 | 브레인포스 T. 032-423-1988 |

굿모닝인천은 goodmorning.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Cover Story

크루징 투게더(Cruising Together)

맑게 갠 어느 여름날, 파란 하늘을 유영하는 고래를 만납니다. 고래는 어떻게 보면 느린 것 같지만, 한 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조금 더디어도 좋고, 조금 둘러가도 좋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도 열정이 있으면 언젠가 파란 하늘을 만날 수 있겠지요. 지금 인천의 여름하늘이 푸르게 빛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소재 / 작품명 : 크루징 투게더 Cruising Together〉



12



08



18



24

06 Focus 평창동계올림픽

08 Zoom In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

12 지상전시 제1회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

18 Summer Story 호텔에서 여름나기

24 Enjoy Incheon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30 Old But New 송현동

36 Culture News 문화뉴스, 이달의 공연전시

38 사람과 사람 윤철형 · 그레이스

42 Civic News 시청뉴스

45 Council News 의정뉴스

48 별난 물건, 별난 역사 선풍기

50 책 읽는 인천 도서관증 사업

52 Infobox 생활정보

56 Spot the Difference 다른 그림 찾기

57 Reader's Photo 김치찰락

58 모닝커피 한잔 김성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08

Zoom In |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

예비 글로벌 리더들 인천에 모인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세계의 대학생들이 인천에 온다.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Global Model UN Conference · GMUN)'가 열린다.

12

지상전시 | 제1회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

평화, 예술로 다가서다

서해바다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어머니의 품성과 닮아있다. 거칠고, 모진 세월을 넉넉한 품으로 감싸안으며 늘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왔고, 지치고 고단한 이들에게 그 품을 내어주었다.

24

Enjoy Incheon |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음악으로 'HOT뜨거운' 이 여름!

인천의 여름은 뜨겁다! 강렬한 록 비트에 맞춰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짜릿함을 만끽하라. 자유와 열정,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속으로!

Contents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

인천시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enews.incheon.go.kr)
블로그(blog.naver.com/flyic)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www.facebook.com/visionincheon)을 통해 인천과 만나세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이라면, 쓰든 달든 언제나 환영합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천에 대한 생각과 인천의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032-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됩니다.

2014 AG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많은 인천시민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무리한 부채문제를 우려해 개최반납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화합과 소통'의 기치를 발휘해야 오늘의 위기를 내일의 영광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아시아경기대회가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치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_ 이현정 남구 송의4동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굿모닝인천>

안녕하세요. 올해 학교에 입학한 풋풋한 여고생입니다. <굿모닝인천>은 우리 언니가 선생님 소개로 고등학교때부터 보던 시정소식지인데, 이제는 제가 언니보다 더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인천에 살면서도 인천의 역사, 문화, 관광지 등에 대해 잘 몰랐는데 책을 통해 알게 되어 기쁘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굿모닝인천>. 지금처럼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_ 안젤마 남구 주안2동

사랑하는 내 고향 인천

<굿모닝인천>을 통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등을 비롯해 나날이 발전하는 인천을 봅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저 또한 가정의 행복을 책임지는 주부로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인천시 공무원 여러분 힘내세요~

_ 김봉숙 남구 주안6동

올 여름, 강화로 오세요!

강화에 살면서도 강화 바다 끝자락에 말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굿모닝인천>에서 소개해 주어 무척 반가웠습니다. 거리상으로 멀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머나먼 섬, 일주일에 세 번 행정선만 다닌다는 말도. 올 여름에는 말도에 가서 쌍바위 주변에 지천으로 널린 게와 소라를 잡아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유난히 붉고 눈부신 노을을 품고 있는 강화도로 오세요.

_ 조원옥 강화군 선원면

소통과 화합으로 인천이 더 발전하길

<굿모닝인천>을 통해 송영길 시장과 외국인들의 간담회 현장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을 책임지는 분과 시민의 교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인천의 발전상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논한 만남의 장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열어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인천으로 발돋움하길 바랍니다.

_ 이규호 용인시 수지동

늘 반가운 고향소식

인천이 고향이지만 인천을 떠나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의 냄새를 맡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향우회 모임에 책을 가지고 가서 친구들과 함께 읽어 아겠습니다.

_ 안영선 대구시 수성구

내가 사는 송도가 더 깨끗하길

송도국제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현재 송도센트럴파크 주변에 자전거 설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으로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 쓰레기 더미들이 보이네요.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환경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_ 현애리 연수구 송도동

제2의 고향 인천

직장 따라 인천에 와서 소중한 가정을 이루고 인천시민이 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된 <굿모닝인천>을 통해 인천의 역사, 바다 그리고 섬, 생활정보에 이르기까지... 인천을 살아가는 데 있어 유익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굿모닝인천> 고마워요. 앞으로 더 알차고 좋은 정보로 인천을 알려 주세요.

_ 안영국 남동구 논현동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해당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bulloger 월미은하레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은하레일 검증위원회에서 지난 6월 13일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해 인천교통공사에서 시공사인 한신공영(주)에 법적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bulloger 항상 차를 타고 출근합니다. 그런데 입학역 앞부터 박촌역 앞까지 비가 오면 배수가 잘 안 돼 운전하기 무섭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세요.

해당 구간의 배수관계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비닐 등 쓰레기로 인해 집수받이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수받이 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bulloger 제3연륙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3연륙교를 연결하면 기존 2개 대교(영종대교,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감소하게 되어 이에 따른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토해양부와 보상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주세요

이름 오병권(당시 만 72세, 남)
발생일자 2000년 12월 20일
발생장소 남구 주안주공아파트 (남인천우체국, 간선역 부근)
신체특징 170cm, 60kg, 마른 체격, 치매증상, 당뇨, 총총걸음, 틀니 착용하나 실종 시 미착용, 시력 나쁨.
제보처 보건복지부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02-777-0182
www.missingchild.or.kr



2014 2018

서해의 인천과 동해의 평창

‘평화벨트’로 이어진다

“평창(PYEONGCHANG)! ”

7월 7일 0시 18분 무렵(한국시각) 낭보가 날아왔다.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2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도시를 발표했다. ‘평창’이란 단어가 전 세계인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평창(63표)은 이날 독일의 뮌헨(25표)과 프랑스의 안시(7표)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며 1차 투표에서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최종 결정됐다. 63표는 역대 IOC의 올림픽 개최지 1차 투표득표 중 최다 신기록.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동·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4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스포츠 그랜드슬램’ 국가가 됐다.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국가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러시아 뿐이다.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도시로 결정되는 순간 그 어느 도시보다 기쁨을 감추지 못한 도시는 인천이다. 우리 인천은 지난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유치로 인해 평창이 손해를 본 것 같아 그동안 미안한 마음을 가졌던 게 사실. 우리시는 낭보가 전해지길 기원하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시민한마당 행사를 시청 앞 광장에 마련했다. 송영길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민은 지난달 6일 밤 유치가 결정될 때까지 시청 광장에서 평창유치 응원전을 벌였다. 8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귀국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픽 유치위원회 대표단을 맞기도 했다. 우리시는 ‘8688-1418전략’을 펼칠 것이다.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한 것처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확실한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를 인천과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북한과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2014년, 2018년 대회가 두 도시의 동반성장은 물론 북한과의 공동 교류 등을 통해 ‘서해의 인천’에서 ‘동해의 강원(평창)’으로 이어지는 평화 벨트가 조성되면서 남북 화해 무드를 만들고 국운과 국력이 상승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과 ‘미래의 땅’ 강원도를 동서로 연결하는 국토의 대동맥이 인천에서 시작되는 대 역사(役事)가 펼쳐질 것이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강원도 평창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이 추진된다. 이로 인해 인천항, 인천공항 등 인천지역을 비롯한 서해안권과 강원내륙권, 동해안권 간의 교통, 물류망이 대폭 혁신될 것으로 기대된다.

GLOBAL MODEL UN
INCHEON 2011 AUGUST 10-14

예비 글로벌 리더들 인천에 모인다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세계의 대학생들이 인천에 온다. 인천은 세계적 이슈를 다루는 거대한 담론의 장이 된다.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Global Model UN Conference · GMUN)'가 열린다.

세계 57개국 6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송도국제도시에 모여 인류의 근원적 문제인 분쟁, 빈곤, 인권, 환경, 발전 등에 대해 토의하며 합의를 도출한다. 유엔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인 만큼 세계인의 이목이 송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SUSTAINABLE DEVELOPMENT
ADVANCING
HUMAN PROGRESS
IN HARMONY WITH
NATURE



송도컨벤시아

반기문 총장 청소년대상 특별강연

이번 제3차 세계모의유엔대회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기조연설과 인천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최근 연임에 성공했고, 연임이후 첫 방문지로 한국의 인천을 선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반기문 총장의 청소년 대상 특강은 8월 11일(목) 인천대학교 강당에서 '세계를 향한 비전'을 주제로 17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반기문 총장의 세계모의유엔대회 참석은 지난 1월 송 시장이 미국 방문길에 반 총장과의 만찬과 면담에서 참석을 요청했고, 반 총장이 수락하면서 전격 이뤄졌다. 반기문 총장의 특강 참가자 1천명은 사전 온라인 등록 접수를 통해 모집했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 시작 18분만에 1천 여명이 마감되는 진기록을 보였다. 송 시장도 개막식인 8월 10일 참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장에게 듣는다-글로벌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모이는 만큼 다양하고 진귀한 세계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기회다. 8월 10일 열리는 글로벌빌리지는 참가학생들이 자국의 문화를 소개하며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자리다. 도자기, 부채공예체험, 전국대학장사 씨름대회 등을 비롯한 각국의 다양한 전통 공연을 선보인다.

2009년 시작, 인천대회는 세 번째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는 유엔이 주관하는 공식행사로 인천대회가 세 번째다. 2009년 시작하여 제1회는 스위스 제네바, 제2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제3차 인천대회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자연과 조화로운 인류발전'으로 각국의 대학생들을 4개의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각 소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합의를 통한 결론을 도출한다. 이들은 유엔의 의사규칙에 따라 기조연설을 하고 토론을 벌이며 실천계획을 담은 결의안인 '인천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참가학생들은 회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유엔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습득하고, 차세대 외교관으로서 소양을 쌓게 된다. 또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평화와 복지증진에 동참하는 기회를 갖는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국제회의의 참관 기회 제공

우리시도 인천을 찾는 세계 젊은이들에게 인천을 적극 알리기 위해 시티 투어 행사를 갖는다. 8월 10일 참가학생 2백명을 대상으로 인천도호부청사, 월미전통공원, 월미문화의거리, 컴팩스마트시티, 신포시장을 두루 돌며 인천의 전통과 국제도시로 변화한 발전상을 보여준다.

인천 고등학생들에게도 세계 대회에 참여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회의를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참관, UN 소개 강의를 청강할 수 있는 읍저버(회의참관), 회의진행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참가학생들에게는 참관 인증서 및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우리시와 유엔공보처, 유엔한국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세계각국의 만 18~26세 대학생 647명과 초청인사 100여 명, 인천지역 고교생 참관단 400명 등 총 1천2백여 명이 참석한다. 저개발국, 분쟁국 대학생 13명과 북한 대학생 5명이 특별초청돼 이번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우리시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인천을 알리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주요 회의 일정>

| 일자 시간 | 8월 10일(수) | 8월 11일(목) | | 8월 12일(금) | 8월 13일(토) | 8월 14일(일) | |
|----------|------------------|-----------------------|----------|---------------------|---------------------|--------------------|-------|
| 09:00 | 참가자 등 록 | GMUN 소개 세션2 | | 위원회 회의1 (읍저버참관) | 위원회 회의3 (읍저버참관) | 위원회 회의5 (읍저버참관) | |
| 10:00 | | | | | | | |
| 11:00 | | | | | | | |
| 12:00 | | | | | | | |
| 13:00 | GMUN 소개 세션1 | 점심식사 |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점심식사 | |
| 14:00 | | | | | | | |
| 15:00 | 인천세션 (읍저버 참관) | 개막식 | | 위원회 회의2 (읍저버 참관) | 위원회 회의4 (읍저버 참관) | 폐막총회 | |
| 16:00 | 위원회 전체회의 | 기 자 회 견 | 개막 총회 | | | | |
| | | 이 동 | | | | | |
| 17:00 |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특별강연 | | | | | 폐 막 식 |
| 18:00 | Global Village | 시티 투어 (200명) | - | | | | |
| 19:00 | | 주요인사 리셉션 | | 만 찬 | 저녁식사 | 환송만찬 | |
| 20:00 | | 환영만찬 | | | | | |
| 21:00 | - | | | | | | |

※ 회의일정 추후 변동가능 ※ 각 위원회 회의는 4개 소위원회 동시 진행

[위원회별 소주제]

제1위원회(군축 · 국제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 안전과 안보
(Nuclear safety and secur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군사분쟁의 영향
(The impact of armed conflic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제2위원회(경제 · 재정)

녹색경제를 위한 대체에너지 친화적 시장환경 개선
(Improving market conditions in favour of alternative energy towards a green economy)
지속 가능한 농업을 통한 세계식품안전 보장
(Ensuring global food security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e)

제3위원회(사회 · 인도 · 문화)

지속 가능한발전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교육과 인식 확대
(Promotion of education and awareness as the main tools to effectively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성(性)과 지속 가능한 발전
(Gend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제4위원회(특별정치 · 반식민)

환경난민과 자국내유랑자(IDP): 강요된 이주와 기후변화문제
(Environmental refugees and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forced migration and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국제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정치적 노력 혁신
(Renewing political commitment toward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governance)



인터뷰 | 이동엽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 의장

“자연과 조화로운 발전 우리시대 할일”



“이번 대회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과 인천을 알리고,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의견을 도출하는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1 세계모의유엔대회의 의장을 맡은 이동엽군(경희대 국제학부 2)은 국제대회의 참가 경험이 많다. 고등학교때부터 유엔관련 회의와 국제대회에 수차례 참가해왔고 현재도 대학생연합 모의유엔대회 사무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예비 국제통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이번대회 의장당선도 오랫동안 국제대회 참가경력과 수상경력이 도움이 됐다. 이군은 대회 참가를 위해 지난 3월 유엔에 신청서를 냈고, 유엔공보처와 영어 인터뷰, 세계의 참가학생들의 투표를 거쳐 의장에 당선됐다.



이군은 의장으로서 대회의 주제인 ‘지속 가능한 발전-자연과 조화로운 인류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갖고 총회에서 강연을 하고, 각국을 대표해 참가한 학생들과 화합하며 대회진행을 총괄한다. 이 군의 장래희망은 유엔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북아 안보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스펙도 쌓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 군은 의장으로서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시차가 다른 28개국 의장단들과 밤과 새벽을 이용해 이메일 회의를 하며 대회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이 군은 자신과 같이 국제무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본인이 좋아하고 관심있는 분야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위해 노력 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이 예술을 통해 서해바다를 평화와 화해, 소통의 바다로 승화하는 전시를 열고 있다.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가 주제인 이번 전시는 해외작가 5명을 포함해 총 59명의 작가가 참여해 회화, 조각, 영상, 퍼포먼스, 시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20여 점을 선보인다. 시각예술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60여 명의 작가는 작품 전시를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천안함과 연평도피격 사건으로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던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를 돌아봤다. 작가들은 바다, 자연환경,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생생히 보았고, 남북한의 대치상황으로 인한 분단의 상처, 북한폭격으로 남은 잔해와 상흔을 살펴보면서 다시금 '평화'의 중요성을 실체적으로 절실히 느꼈다.

작가들은 섬이 평화로워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생각하에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되었던 '평화, 바다, 섬'이라는 문구를 자신들의 예술 영역에서 가장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했다. 백령도와 대청도의 절경과 비경, 아름다운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위안을 담은 작품은 물론, 남북한의 대치상황을 '평화'라는 화두로 은유적으로 때로는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북한 폭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평도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과 현실적인 아이러니도 작품 속에 녹였다. 자연은 분단의 상황과 관계없이 자유로이 남북을 돌아다니지만 사람만이 철책장애와 분단 이데올로기로 왕래하지 못하는 현실을 들추면서 '평화'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한다. 이번 전시는 국내 작가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미국 작가들도 함께 참여해, 이방인의 눈에 비친 서해바다와 평화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전시를 알리고,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작가 유지환은 '리플라이2011(Reply2011)-평화, 인천, 소통' 퍼포먼스로 시민들과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인천아트플랫폼→월미도→영종도→인천국제공항→홍익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돌면서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를 알리고 관객들을 모은다. 퍼포먼스는 7월 23일과 8월 15일 두 번 열린다.

인천은 북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평화의 의미가 더 크고 절실하게 다가온다. 평화를 매개로한 이번 전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져 분쟁을 넘어 화해로 그리고 때로는 무심하게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 예술로 다가서다

서해바다는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어머니의 품성과 닮아있다. 거칠고, 모진 세월을 넉넉한 품으로 감싸안으며 늘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왔고, 지치고 고단한 이들에게 그 품을 내어주었다. 북한과 인접해 있는 인천의 섬과 바다엔 수많은 자연이 담겨있다. 서해교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피격사건... 갈등의 접경지대로 아픈 바다이지만 세계로 나아가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분쟁과 갈등의 바다로 인식되던 서해바다를 우리시대의 화두인 '평화'로 승화시키는 미술전시회가 열려 한여름 그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아트플랫폼 제공, 홍승훈 자유사진가



- 전시기간 : 7월 22(금)~8월 28일(일)
- 전시장소 : 인천아트플랫폼 B동 전시장 외
- 관람시간 : 10:00~18:00(금/토 10시~20시, 월요일 휴관)
- 문의 : 760-1000





윤석남(Yun Suk Nam) / 어시장 II (Fish Market II)
가변크기 / 혼합매체 /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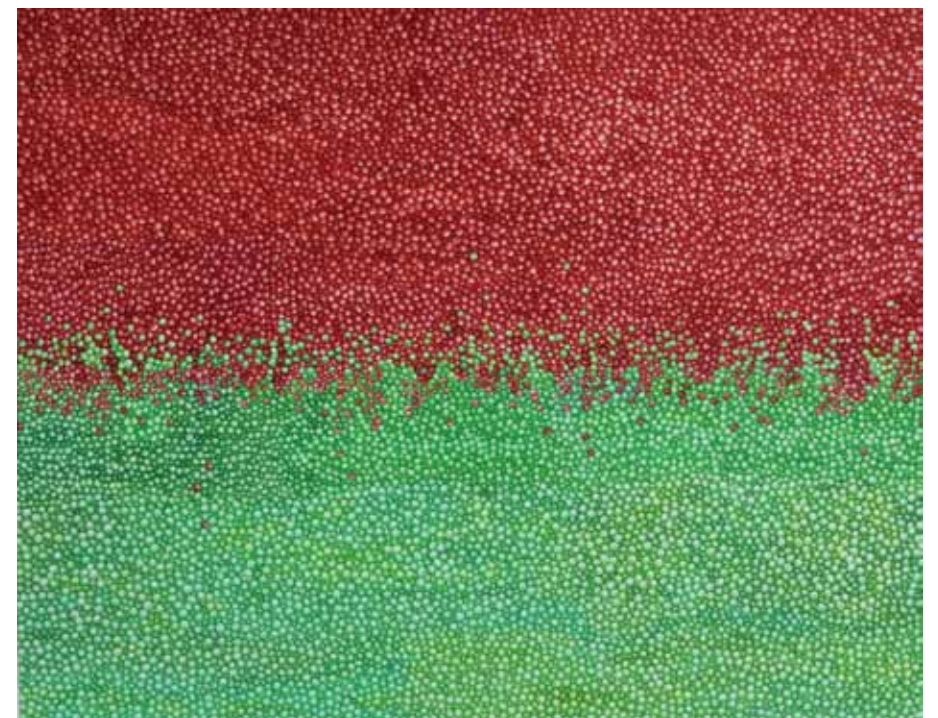


이종구(Lee Jong Gu)
황해 / 193×130cm
캔버스에 아크릴 / 2011(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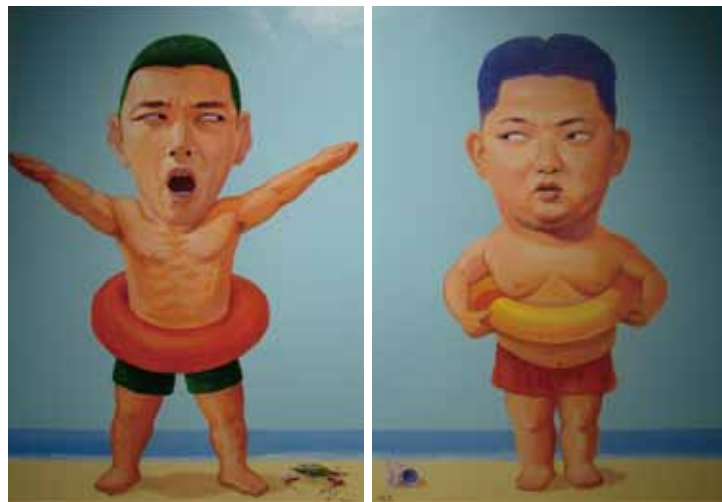


이윤엽(Lee Yun Yop) / 폐기된 무기 Abandoned Weapons
210×150cm / 목판화_2011

정정엽(Jung Jung Yeob) / 팔과 완두(red bean and green bean)
91x116cm / 캔버스에 유채_2011



이명복 / 두 남자 / 100×72.7cm / 캔버스에 아크릴





김태은(Kim Tae Eun) / 전쟁 3부작(Triple War) / 10분 / 3채널 비디오 / 2011

전쟁은 아직도 진행형 – 영웅들의 섬 김태은 작가

월미도에서 벌어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사실과 장소성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프로젝트. 전시장 안에 설치된 군대막사에는 국내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 (63년작)과 북한영화 ‘월미도’(83년작)를 동시 상영하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상황, 총성소리로 아직도 긴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쟁으로부터 60년이 지난 현재의 월미도. 전쟁의 상흔은 잊혀지고 ‘디스코팡팡’ 놀이기구가 새로운 명물이 됐다. 작가의 시선은 카메라가되어 현재의 월미도를 관통하고 과거의 역사를 재현한 영화 속 공간을 따라 추적해가면서 전쟁이 현재진행형임을 역설한다.



일상 삶 속의 평화를 반추 박충의 작가

고향이 백령도인 작가는 8살에 백령도를 떠났다. 이번 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42년만에 고향을 찾았으나 정겨움과 함께 낯설음을 동시에 느꼈다. 작가는 한 달간 백령도에 머물면서 작품을 그렸다. 고향에서 만난 이웃, 친구, 친척, 풍경을 소박하면서도 정겹게 그리면서 평화를 녹여냈다. 주민들의 일상과 생활 속에 평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곳이 경제지역, 접경지역인 것은 군인과 그 가족이 주민의 절반가량 된다는 것, 천안함 사건으로 관광객이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이 증명한다. 작가는 백령도 주민들의 평화로운 모습과 순박한 삶을 아크릴작품 22점과 스케치 19점으로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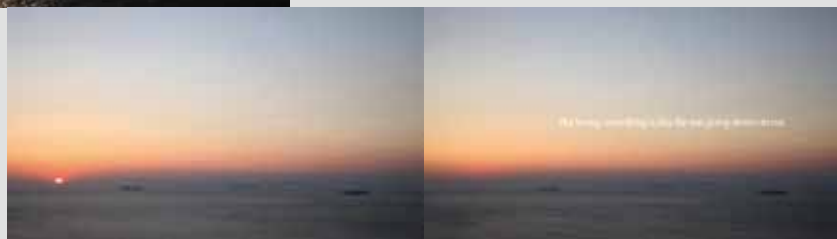


박충의(Park Chung Eui) / 정태신아저씨-용기포부두 / 2011

박충의(Park Chung Eui)
호근이 / 65×53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 2011



타케시 모로(Takeshi Moro)



연평도의 아름다운 일몰 작품화 타케시 모로

일본인 아티스트 타케시 모로는 지난해 북한에 의한 피격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연평도를 작품화했다. 연평도를 돌아보면서 대피소에 집중했고, 전쟁의 상징물인 대피소의 어둡고, 칙칙하면서도 녹녹한 이미지를 카메라 옵스큐라 기법을 통해 연평도 사건을 은유적으로 표현, 창작 작품화했다. 작가는 영국에 살면서 대피소를 본 적이 있는데 전쟁의 부산물인 대피소는 없어져야 할 공간이기에 평화의 대척점에 놓았다.

또한 노래방에서 보는 듯한 아름다운 일몰 풍경을 영상작품으로 담았다. 남한땅에서 해가 떠 북한땅으로 해가지는 모습을 엘튼존의 시적인 가사와 선율을 접목시켜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통해 평화를 노래하고 갈구하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했다.

바다, 파도... 인천 호텔에서의 하룻밤

하루쯤, 일상의 짐을 벗고 그저 폭 쉬고 싶다. 하지만 할일은 산더미고 봄비는 휴가지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힌다. 그렇다면 먼 휴가지 대신, 가깝고 아늑한 도심의 호텔로 가자. 이 여름 섬과 바다를 품은 인천의 호텔에서 몸과 마음에 푸른 休를 드리운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수상택시 타고 도시를 누빈다 송도파크호텔

푸른 바다 위 펼쳐진 꿈의 도시, 송도. 베스트웨스턴프리미어 송도파크호텔은 송도국제도시의 심장 국제업무단지에 우뚝 서 있다.

송도파크호텔은 '서머 시티(Summer City)' 패키지를 이달 15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송도컨벤시아 워터파크 '무무야 물놀이 가자'와 어린이 테마파크 '유후와 친구들이아일랜드'를 어른 두 명과 어린이 한 명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호텔을 찾는 이들은 한결같이 송도국제도시의 이국적인 풍광에 감탄한다. 동북아트레이드타워, 송도컨벤시아, 송도센트럴파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인천대교, 호텔 19층에 있는 레스토랑 라스텔라와 객실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마치 지구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10월 말까지 선보이는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패키지도 인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다. 센트럴파크는 앞만 보고 달려 온 삶에 푸른 심표를 찍는 도심의 휴식처. 수상택시 미추홀호에 몸을 싣고 수로 위를 유유히 흐르면 일상의 잡념이 바람에 씻겨 흩어진다. 이 패키지를 즐기기 위해 서울 등 인근 도시에서 호텔을 찾는 이들도 많다. 수상택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매시간 1회 운항하며, 패키지 당 왕복 승선권 2매를 제공한다.

키 포인트 | 송도국제도시, 송도센트럴파크 수상택시, 송도컨벤시아 워터파크 및 어린이 테마파크

요금 | 서머 패키지 이용료는 주중 14만4천원, 주말 16만9천원. 수상택시 패키지는 조식을 제공하는 A는 주중 13만8천 주말 15만8천원, 석식을 제공하는 B는 주중 16만4천원, 19만6천원이다(부가세 별도).

문의 | 210-7000 www.songdoparkhotel.com





항구의 낭만에 젖다 하버파크호텔

푸르게 물결치는 바다 그 위를 힘차게 항해하는 선박 그리고 하늘 높이 쌓인 컨테이너.... 인천항에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역동적인 에너지와 희망찬 미래가 넘실거린다.

중구 항동, 인천항 바로 곁에 있는 하버파크호텔은 이달 31일까지 ‘쿨 하버(Cool Harbor)’, ‘스테이 쿨(Stay Cool)’ 서머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전망 좋은 레스토랑에서 석양이 내린 인천항을 바라보며 바다의 풍미를 즐길 수 있다. 또

스카이라운지에서 호텔이 제공하는 서머커피테일을 마시며 야경에 젖을 수 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잠기고 불빛이 하나둘 피어오르면 바다는 눈부시어 어릿할 정도로 찬란히 빛난다.

특히 이 호텔에 머물면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차이나타운, 근대 개항장, 신포시장, 월미도 등 인천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가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차이나타운과 근대개항장에서 시공간을 넘나들고 신포시장에서 맛난 닭강정을 맛보노라면 하루가 모자르다.

인천에 왔으니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유람선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바다 위, 시원한 바람이 밀려오고 보이는 건 온통 푸른 물결. 그 위에 인천대교가 장대한 위용을 자랑하고 하늘에는 불꽃이 현란한 빛을 뿜어낸다. 쏟아지는 별빛, 바다 그리고 곁에 있는 특별한 사람.... 그렇게 바닷가 호텔에서의 밤이 꿈결처럼 흘러간다.

키 포인트 | 인천항, 차이나타운, 근대 개항장, 신포시장, 월미도, 유람선

요금 | 쿨 하버 패키지가 16만6천원, 스테이 쿨 패키지가 12만원이다(부가세 별도). 월미도 놀이동산 자유입장권을 30% 할인한 가격에 그리고 유람선 입장료를 20% 할인한 가격에 제공한다.

문의 | 770-9500, www.harborparkhotel.com



유년의 추억과 함께한 여름 라마다송도호텔

라마다송도호텔은 인천의 명산 청량산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다. 또 근처에 역사의 편린을 떠오르게 하는 박물관과 기념관, 오래된 사찰이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보내기 좋다.

호텔은 여름을 맞아 ‘서머 바캉스(Summer Vancance)’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호텔 가까이 있는 송도유원지에서 신나는 한때를 보낼 수 있다. 누구나 그때 그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송도유원지를 찾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유원지 내에 대형 슬라이드와 물썰매장, 어린이 전용 풀장을 갖춘 최신식 워터파크가 자리 잡았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워터파크에서 물놀이하고 호텔에서 마련한 전용 휴양소에서 밥해먹고 야영도 즐기며 느긋하게 쉴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청량산에 오르길 권한다. 산세가 수더분하고 소나무 숲이 그늘을 드리워 두 눈 가득 마음 가득 푸르름을 전한다. 산행 후 슬슬 시장기가 돌면 호텔 근처 식당가를 찾아보자. 해산물 요리부터 한정식 그리고 각 나라의 음식까지 다채로운 요리가 미각을 만족시킨다. 이 여름 변화의 움직임 속에 지나간 역사가 서려 있는 송도에서 특별한 추억을 아로새기자.

키 포인트 | 송도유원지, 워터파크, 청량산, 송도식당가

요금 | 패키지 가격은 14만원으로 조식 뷔페, 송도유원지 입장권을 포함한다(세금과 봉사료 포함). 패키지 이용 고객 가운데 선착순 100명에게 레스토랑 뷔류의 30% 이용 할인권을 준다.

문의 | 832-2000, www.ramada-songdo.co.kr



별과 함께 꿈이 빛난다 셰라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셰라톤 인천은 오는 9월 4일까지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서머 패키지를 선보인다. 패키지는 모두 세 가지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먼저 ‘서머 스토리(Summer Story)’는 1박과 조식을 포함한 기본 패키지로 현명한 알뜰족에게 추천한다. ‘쿨 서머(Cool Summer)’ 패키지는 가족 단위의 이용객을 위해, 기본 패키지에 송도컨벤시아 워터파크 ‘무무야 물놀이 가자’와 어린이 테마파크 ‘유후와 친구들이월드’ 이용권을 더했다. 송도국제도시는 하루도 머무르지 않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도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긴 후 송도컨벤시아, 투모로우시티 등을 둘러보면 아이의 꿈이 원대하게 자랄 것이다.

또한 ‘로맨틱 서머(Romantic Summer)’ 패키지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베네에서 와인과 함께 즐기는 특별한 디너가 포함돼 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공중으로 흩어지는 음악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송도국제도시,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 연인과의 사랑도 깊어간다.

이들 패키지를 이용하면 피트니스센터, 실내 수영장, 사우나 등의 부대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선 베드에 몸을 누인 채 눈부시게 청명한 바다를 눈에 담은 여름날의 휴가,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정당한 사치다.

키 포인트 | 송도국제도시, 송도컨벤시아 워터파크 및 어린이 테마파크

요금 | 서머 스토리 패키지는 17만5천원, 쿨 서머 패키지는 시즌별로 16만5천원과 18만원, 로맨틱 서머 패키지는 23만원부터다. 토요일과 성수기에는 3만원을 추가로 부과한다(부가세 별도).

문의 | 835-1000, www.sheratonincheon.com



푸른 물결 위 마음을 누이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

문득 자유를 꿈꿀 때면 영종도로 간다. 차창 밖에 넘실거리는 푸른 물결, 그 곳에서 햇살, 하늘, 바람, 바다는 모두 하나가 된다. 영종도의 품에 안긴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에서 3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주변 자연경관도 수려하다.

호텔은 서머 패키지 ‘서머 온 더 워터(Summer on the Water)’를 이달 31일까지 선보인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무의도행 여객선에 몸을 싣고 실미해변으로 가 호텔이 마련한 텐트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즐길 수 있다. 호텔 가까이 있는 잠진도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5분 남짓 바다를 건너면 무의도, 섬 북서쪽 실미해변에는 소나무 숲이 초승달 모양으로 뻗뻗이 드리워져 있어 마음까지 선선하게 덮는다.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리면 실미도까지 걸어 들어갈 수도 있다.

호텔 안에도 즐거움이 가득하다. 패키지를 이용하면 야생화 260종이 자라는 정원과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사우나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특히 수영장은 호텔 투숙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야생화 정원에 둘러싸여 있어 마치 꽃밭에서 수영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키 포인트 | 영종도, 무의도 실미해변, 야생화정원

요금 | 패키지는 객실 1박, 객실 1박과 조식 2인, 객실 1박과 2인 디너를 포함한 세 가지다. 무의도행 여객선 왕복 승선권과 실미해변 입장권을 포함한다. 가격은 각각 25만5천원, 30만5천원, 36만5천원(부가세 별도).

문의 | 745-1234 www.hyattregencyincheon.com



음악으로 'HOT뜨거운' 이 여름!

인천의 여름은 뜨겁다! 이글거리는 저 태양처럼,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음악축제가 있기에. 강렬한 록 비트에 맞춰 혈관을 타고 흐르는 짜릿함을 만끽하라. 자유와 열정, 젊음이라는 이름으로 이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속으로!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2011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7.15 ~ 10.8

여름이면 세계 곳곳에서 음악페스티벌이 열꽃처럼 피어난다. 미국의 '우드스톡 페스티벌', 영국의 '레딩&리즈 페스티벌', 일본의 '후지 록 페스티벌'...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펜타포트음악축제'가 있다.

1999년, 트라이포트라는 이름으로 록의 불모지에 피어난 초특급 음악페스티벌. 출연진은 화려했으며 관객의 열정은 뜨거웠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막을 내려야만 했고, 그로부터 7년 뒤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2011년 여름, 페스티벌은 인천의 음악 관련 콘텐츠를 하나로 합친 메가이벤트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로 화려하게 다시 꽃핀다.

우리시가 주최하고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1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는 기존의 록, 뮤직인아츠 페스티벌을 새롭게 구성하고 한류관광콘서트와 세계청소년 동아리문화축제를 더해 풍성하고 화려하게 펼쳐진다.

뜨거운 여름, 인천으로 오라. 강렬한 록비트를 따라 가슴 저 밑바닥에서 열정의 에너지가 솟구칠 것이다.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는 지난 7월 15일 시작해 오는 10월 초까지 약 3개월 동안 인천 전역에서 열린다.

기간 : 7월 15일(금)~10월 8일(토) 장소 : 드림파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아트플랫폼, 부평 문화의 거리 등 문의 : 인천광역시 440-4022, 인천관광공사 220-5123, www.pentaport.kr



Simple Plan



Korn



부활



Joe Brooks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

예전에는 록 페스티벌을 즐기려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했다. 하지만 2006년 펜타포트락페스티벌을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도 록을 향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원조 록 페스티벌이자 대표 음악축제로 자리 잡은 펜타포트락페스티벌. 올해도 어김없이 서구 드림파크에서 3일간 한바탕 놀이판을 펼친다.

올해의 뮤지션 라인업 역시 다채롭고 화려하다. 먼저 헤드라이너로 세계 최강의 하드코어 록 밴드 콘(Korn), 첫 내한공연을 갖는 펑크록 밴드 심플플랜(Simple Plan)이 가슴에 화끈하게 불을 지핀다. 여기에 주목받는 신예 텅팅스(The Ting Tings)와 네온 트리스(Neon Trees), 마마스건(Mamas Gun), 칙칙칙(chk chk chk !!!), 마이스페이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조 브룩스(Joe Brooks) 등이 가세한다. 국내 라인업도 탄탄하다. 우리나라 록 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 부활, 봄여름가을겨울, 노브레인(Nobrain), 스키조(Schizo) 등 실력과 뮤지션들이 펜타포트 무대에 오른다.

페스티벌은 메인 무대인 펜타포트 스테이지,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는 드림 스테이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현란한 레이브파티를 여는 그루브 스테이지로 펼쳐진다. 오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아무 스케줄도 잡지 말라.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이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움직여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할 것이다.

기간 : 8월 5일(금)~7일(일) **장소** : 서구 드림파크 내 **출연진** : 콘(Korn), 심플플랜(Simple Plan), 바비레이(B.O.B), 부활 등 **Tip** : 페스티벌 기간 동안 공항철도 검암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가 다닌다. 숙박은 캠핑존이나 시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티켓 가격은 1일권 8만8천원, 2일권 13만5천원, 3일권 16만5천원. 캠핑존은 2일권과 3일권 티켓을 구매해야 입장할 수 있으며 가격은 일인당 1만원이다.

인천펜타포트뮤직인아츠페스티벌

지난 7월 15일 펜타포트음악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의 향연이 인천을 물들였다. 이날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뮤직인아츠페스티벌 개막식에는 금난새가 지휘하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연주와 김범수, 봄여름가을겨울, 걸스데이, 블랙비 등 인기 뮤지션의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다. 뮤직인아츠페스티벌은 7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인천 전역에서 다채로운 음악공연과 퍼포먼스로 열린다. '메이드 인 펜타포트'는 일반시민과 문화예술인이 한데 어우러져 신명나는 예술의 장을 펼친다. 또 '핫 아이 템 인 코리아'는 일상에 지친 당신을 표현의 한계를 극복한 변독이는 예술의 세계로 안내한다.

특히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아시아스팟라이트'를 주목할 만하다. 아시아 아티스트의 특별공연과 사진전, 뮤직카페를 통해 음악으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다. 아시아스팟라이트의 참여 아티스트는 일본의 하바드(Harvard), 태국의 스퀴즈 애니멀(Sqweez Animal), 우리나라의 몽니, 허클베리핀, 데이브레이크 등이다.

기간 : 7월 17일(일)~8월 21일(토) **장소** : 동인천역 일원, 부평역 일원, 인천터미널, 인천메트로 등 **Tip** : 최고의 가수, 내 손으로 뽐는다! 청중평가단이 되면, 공연팀 가운데 최고의 팀을 선정해 폐막공연 무대에 오르게 할 수 있다. 평가단이 되려면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홈페이지(www.pentaport.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meojiin@naver.com)로 제출한다.





인천한류관광콘서트

인천에 반짝반짝 별이 쏟아진다. 2PM, 소녀시대, 2NE1, 슈퍼주니어, miss A, 엠블랙... 아시아를 넘어 유럽도 놀라게 한 스타들이 인천한류관광콘서트를 통해 인천 무대에 오른다.

인천한류관광콘서트는 지난 2009년 시작해 국내외 관객 5만여 명을 모으고 국내외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악공연. 올해 세 번째를 맞은 콘서트는 이달 13일 오후 7시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 역시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총출동한다. 2PM, 소녀시대, 2NE1, 슈퍼주니어, miss A, 카라 등 K-pop 주역들의 공연 소식에 문학별은 벌써 후끈 달아올랐다.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외국 관객들이 단체 예약을 하는 등 관심이 뜨거워 한류열풍에 불을 당길 전망이다.

이번 콘서트는 MBC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눈부신 별들의 향연, 인천한류관광콘서트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축제로 성장해 인천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널리 알릴 길 기대한다.

기간 : 8월 13일(토) 오후 7시~9시 30분 **장소** :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 **출연진** : 슈퍼주니어, 2PM, 소녀시대, 2NE1, 비스트, 카라, 샤이니, 2AM, f(x), miss A, 티아라, 엠블랙, CNBLUE, FT아일랜드, SG워너비, 시크릿, 포미닛, 씨스타, 손담비 등 **홈페이지** : www.koreanwavefestival.com

인천세계청소년동아리문화축제

축제 안에서 펼쳐지는 예술은 장르와 시대는 물론 세대를 아우른다. 올해 펜타포트음악축제에는 기존에 진행하던 인천청소년동아리경진대회를 세계 청소년동아리문화축제로 새롭게 업그레이드해 더욱 풍성하게 연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 청소년들은 꿈꾸던 무대 위에서 그동안 가꿔 온 끼와 재능을 맘껏 펼친다. 합창, 랩, B-boy,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뮤지컬, 연극 등 장르도 그네들의 꿈처럼 무궁무진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창작영상과 발명품, 코스프레 등을 전시하고, '아름다운 인천'을 주제로 백일장도 연다. 여기에 각 분야별 우수 동아리를 선정해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수상자 가운데 일부는 인천홍보대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축제기간에는 또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동아리와 외국 청소년동아리를 초청, 특별 공연을 연다. 축제가 세상을 향한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고 원대한 꿈을 품게 하길 바란다.

기간 : 8월 27(토) 오전 11시~오후 6시 **장소**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Let's Play!

음악축제에서 제대로 놀자!

이 뜨거운 여름, 제대로 화끈하게 즐기고 싶다면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로 오라. 단 축제의 열기를 100% 만끽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을 숙지할 것!

하나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글거리는 태양, 뮤지션과 관객이 뿜어내는 열기로 공연장은 뜨겁다. 열광의 도가니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땀을 잘 흡수하는 티셔츠와 모자, 물에 적서 땀을 식힐 수 있는 수건을 챙기자. 구급약과 선크림도 필수.

둘 명당자리를 사수하라

공연장 최고의 명당자리는 어디일까? 바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앞자리 그리고 완벽한 음향과 시야를 확보하는 제작 스타프 옆자리다. 스타프는 모든 조명과 사운드를 그들이 위치한 중앙에 맞춰 조절하기 때문이다.

셋 귀를 보호하라

85dB보다 더 큰 소음은 청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공연의 사운드는 대부분 120dB을 넘긴다. 공연장의 어마어마한 스피커 출력에 귀가 놀랄 수도 있으니, 이어플러그를 준비하라. 사운드를 온전히 느끼면서도 귀를 보호할 수 있다.

넷 오픈 마인드

축제에서는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 과격한 록음악도, 불편한 캠퍼장도, 수많은 인파도, '즐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축제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다. 그냥 즐기자.

다섯 현실은 잠시 잊어라

센스 없는 당신이라면, 축제에서도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곁에 두고, 책상 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인 서류더미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축제는 축제다. 잠시 일상을 잊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듯 신나게 놀자.

★축제의 자세한 프로그램 일정은 55페이지를 참조.

난민과 빈민을 품어 준 수도국산

동구 송현동은 산을 품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다. 송현동 사람들은 바다는 공장에 내주고 산으로 들어와 살았다. 수탈과 전쟁에 밀려서 정착한 산동성이의 삶은 늘 고달팠다. 비탈길 만큼이나 그들의 삶도 비탈졌다. 송현동 사람들은 거개가 난민(亂民)과 빈민(貧民) 사이의 삶이었다. 처절한 그 삶을 지탱시켜 준 것은 그 산, 수도국산이었다.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수도국산과 솔빛아파트.
이제 그 산은 프로그램된 할머니의 젓가슴 같다.

‘민통선’ 수도국산

수도국산은 그들에게 어머니 품이었다. 하나의 산이기에 앞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숨쉬는 삶의 터전이었다. 송현동 사람들은 하루의 고단한 등짐을 내려놓고 밤새 그곳에 기대어 있다가 다시 다음날 새벽 고갯길을 내려가 ‘전쟁터’로 향했다. ‘삶’이란 바윗덩어리를 지고 오르내렸던 그 사람들은 시지프스였고 그 산은 코카사스산이었다.

수도국산의 원래 이름은 송림산(松林山) 혹은 만수산(萬壽山)이었다. 일제는 1910년 이 산의 꼭대기에 노량진에서 끌어온 물을 저장하는 배수지를 만들었다. 자국 거류민의 식수와 군수공장의 공업용수 그리고 인천항에 정박하는 기선(汽船)에 물을 대기 위한 것이다. 이 배수지를 관할하는 수도국이 생기면서 이 산은 수도국산으로 불리었다. 만수산이 그 몸통에 물을 채움으로써 ‘만수(滿水)’가 된 형국이었다. 수도국산은 근 100년 가까이 민통선(민간인 통제선) 구역이었다. 배수지 바깥으로 철조망이 둘러 쳐져 있었고 정복을 입은 경비들이 항상 사람들의 접근을 막았다. 당시 동네 어른들은 이렇게 경계가 철저한 것은 배수지가 국가 주요시설로서 만약에 간첩이 물탱크에 독약을 타면 인천시민의 절반이 죽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높고 촘촘한 철조망일지라도 아이들의 몸을 막진 못했다. 숲이 우거진 배수지는 훌륭한 놀이터였다. 철조망을 뚫은 아이들은 나무총이나 칼을 들고 편을 나눠 총싸움을 했다. 밀림 속에서의 서바이벌 게임이었다. 간혹 여자애들도 방학 숙제인 곤충·식물채집을 하기 위해 개구멍을 드나들었다.



생동맞은 누리아파트 옆으로 생동맞은 고가교가 건설되고 있다.



① 송현배수지의 제수변실(단수 및 유압조절기능을 하는 제수밸브를 보호하는 시설물). 출입구 위쪽 벽면에는 '백 번 흐르면 백 번 빛난다'는 뜻의 '만윤백량(萬潤百涼)'이 새겼다. ② 수도국산에 기대어 산 지 반세기가 넘는 할머니들. ③ 달동네박물관 전시물. 1971년 11월 어느날 저녁의 모습이다. ④ 돌산에 지어진 송현아파트. 돌산은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높이가 절반가량 깎였다.

‘세월’의 때를 덕지덕지 묻힌 유물들

철조망 바깥으로 거대한 판잣집 동네가 산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형성되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시루떡 포개 놓은 듯 산 밑에서 꼭대기까지 한뼘의 여유 공간도 없이 앞 집 어깨를 타고 올라섰다. 5만5천평에 1천8백채의 꼬방집들이 다닥다닥 들어섰다. 안방, 건넌방, 마루할 것 없이 창문을 열면 달과 별을 볼 수 있었던 동네. 서울의 난곡과 쌍벽을 이루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달동네 수도국산은 1998년부터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에 들어갔고 송현동 사람들은 다시 자신의 터전을 내주고 밀려나갔다. 그 자리에 3천 가구의 거대한 아파트 단지 솔빛마을이 들어섰다. 다행히 배수지 공간은 그대로 살려두고 공원으로 조성했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들의 애환이 담긴 살림살이들은 2005년에 개관한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에 남겨져 있다. 동네가 철거될 때 전국의 고물상이 다 모여 ‘진기한’ 물건들을 수집해 갔다. 뒤늦게 당시 동구청 직원 김철성씨가 중심이 돼서 수집에 나섰다. 궁중이나 양반댁에서 사용된 고고한 유물이 아닌 우리 부모들이 사용했던 세간들이 ‘세월’의 때를 덕지덕지 묻힌 채 박물관으로 갔다. 박물관 전시는 1971년 11월 어느날 저녁 6시에 맞춰져 있다.

돌산 밑의 수용소촌

골을 사이에 두고 수도국산과 이어진 산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산을 그냥 ‘돌산’이라고 불렀다. 한때 채석장으로 사용될 만큼 이름 그대로 단단한 암석으로 된 산이었다. 이 산 위아래에도 동네가 있었다. 아래에는 피난민 수용촌이 있었다. 6·25전쟁 때 황해도 등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합판, 천막 등을 주워다가 집을 짓고 살면서 난민촌을 형성했다.

“내래 평안도 순천에서 혼자 내려왔지. 열아홉에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기다리다 전쟁이 터져서 잠시 피한다는 게 벌써 60년이 되었어. 수용소촌에 처음 발을 딛고 여태까지 이곳에 살고 있지” 아파트 벤치에서 쉬고 있던 최영숙(80) 할아버지는 옛이야기를 할수록 눈가에 점점 이슬이 맺혔다.

수용소촌 옆에는 1960년대 중반 경 연탄공장이 있었다. 황해도 피난민 출신인 사장은 공장의 이름을 ‘황해연탄’으로 정했다.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용소에 사는 황해도 사람들이었다. 빈손으로 내려와 ‘3·8 따라지’라는 천대 속에서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피난민들은 특유의 근면성과 강한 의지로 남한에서 성공적인 삶을 개척해 나갔다. 돌산 위에도 사람들은 위태롭게 집을 짓고 살았다. 밤

새 하꼬방집이 들어서 자고나면 골목이 하나씩 생겨나기도 했다. 여름 장마가 끝나면 이 돌산 동네에는 천연풀장이 만들어지곤 했다. 물 고인 웅덩이에서 아이들은 다이빙을 하면서 수영을 했다. 80년대 초 이 돌산 동네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재개발되었다. 이 대목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다. 취임 후 전 대통령은 산업시설 시찰로 인천제철을 택했다. 시찰단 일행은 먼저 인근의 수용소촌과 송현3동사무소를 들렀다. 이어 돌산 밑 길로 해서 인천제철 쪽을 가다가 산동네를 보고 깜작 놀랐다. ‘아니 인천에 아직 이런 동네가 있다니...’ 이 길은 외국 귀빈들의 산업시찰 루트이기도 했다. 바로 대통령의 철거 지시가 떨어졌고 1982년 돌산 위에는 10평에서 20평짜리의 5층 공영아파트 송현라이프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이 아파트 앞 쪽 수도국산 산자락에는 1967년에 설립한 송덕중학교가 있었다. 교회가 모태가 된 이 학교는 82년 남동구 만수동으로 이전해 여중과 여고로 분리되어 현재 약 2만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학교가 떠난 이 자리에 한 동짜리 누리아파트가 세워졌다. 얼마 전 아파트 바로 앞에 수도국산을 관통하는 터널과 고가도로가 설치되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솔빛 1차아파트를 지으면서 앞 쪽은 그냥 남겨 두었다. 이 동네에는 아직도 공동화장실이 있다.

작은 배가 드나들던 수문통 갯골의 복개된 모습. 사람들은 그 갯골을 ‘세느강’이라고 불렀다.



일찍 철들었던 송현동 아이들

6, 70년대 국민학교 교과서에 인천은 ‘임해공업도시’라고 설명돼 있다. 바다나 항만을 끼고 조성한 공업단지를 말한다. 송현동에는 바다를 끼고 있는 중후장대한 공장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제철이다. 1941년에 설립돼 요철을 생산한 조선이연금속은 해방 후 조업이 중단되었다가 대한중공업으로 재가동되었고 인천제철로 이어졌다. 이후 인천제철은 현대그룹으로 흡수되면서 현대제철로 그 이름이 바뀐다.

예전에 송현동 일대는 대한중공업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로 대낮에도 해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누구 하나 그것을 탓하거나 시비를 걸기 보다는 산업화 시대의 자랑거리로 삼던 시절이었다. 송현동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공장에서 날아온 철가루를 들이마셔 일찍 철든다는 자조적인 말만 오갔을 뿐이다.

당시 전국의 고물은 제철과 제강 공장이 있는 송현동으로 실려 왔다. 쇳덩이는 곧 돈이었다. 고물을 잔뜩 실은 트럭은 동네 청년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들은 화수동 쪽에서 오는 트럭이 수문통 다리를 지나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 재빨리 트럭에 올라타 돈이 될만한 쇳덩이를 갯골로 던져 버렸다. 물이 빠지면 ‘진리품’을 주워서 고물상에 팔았다. 그 시절 유난히 송현동에는 고물상이 많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송현동의 공장들(동국제강, 현대제철)



아파트로 변한 수용소촌 마을. 그 앞에는 아직도 피난민의 지나 온 삶이 배어 있는 동네가 있다.



중앙시장, 송현시장과 인접한 송현2동. 70년대 대나무 TV안테나가 새키랄게 솟아있던 '잘 살던' 동네였다.

세느강과 몽마르뜨 언덕

송현동은 원래 산을 제외하고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골과 갈대가 무성한 습지가 많았던 동네였다. 일본인 요시다는 1939년부터 43년까지 5년에 걸쳐 이 지역을 매립했다. 화평동과 배다리까지는 갯골로 그냥 남겨 두었고 나머지는 땅으로 만들었다. 그는 매립으로 폐돈을 벌었고 그 일부로 송현 초등학교를 설립했다. 이 때문에 지금은 공립학교이지만 당시에는 사립학교였다.

바다와 연결된 이 갯골이 역사적으로 아주 요긴하게 쓰인 적이 있다. 고종 29년(1892) 서울에 있던 조폐창 전환국이 인천의 전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돈을 찍어내는 주조기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 운송에 어려움이 많았다. 육로보다는 물길을 택해 한강에서 배를 띄워 강화도 쪽으로 해서 만석부두 앞을 지나 수문통 갯골을 이용해 화평동까지 왔다.

후에 화평동에서 인천중앙교회 옆까지는 1차로 복개가 되어 수문통시장이 들어섰다. 슬레이트 지붕에 판자벽을 한 이 상가는 아래층은 가게이고 다락방은 살림집인 일종의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시장으로 시작했지만 화평동 쪽 입구에 순대집과 그 반대편 입구에 과일가게 몇 집만 장사를 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했다. 결국 대부분 주거지로 사용되었는데 대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아 통로는 늘 어둡침침했다. 하루에 두 번씩 바닷물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방바닥에 누우면 물결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복개되지 않은 갯골은 작은 고기잡이배의 포구 역할도 했다. 한여름에 아이들은 먹 을 감기도 했고 어른들은 망둥이 낚시를 하기도 했다. 송현동 사람들은 이 갯골을 '세느강', 수도권 산을 '몽마르뜨 언덕'이라고 불렀다. 결코 낭만적인 삶을 살진 못했지만 송현동 사람들은 빈곤 속에서도 그렇게 늘 낭만을 꿈꾸며 삶을 영위해 갔다.

Culture News

8월의 공연 · 전시 Calendar

8월 5일~8월 11일 2011 인천아트페어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시절
8월 10일~8월 21일 신진작가그룹 초대전 /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기온갤러리
8월 12일~8월 18일 미추홀강대학생 미술대회 작품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절
8월 12일~8월 18일 삼천미술포럼 제37회 정기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8월 12일~8월 18일 제4회 빛과황기 회원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8월 12일~8월 18일 제17회 예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시절
8월 19일~8월 25일 김말숙 개인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8월 19일~8월 25일 Lotus flower exhibition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8월 19일~8월 25일 제19회 인천남구미술협회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기온갤러리
8월 25일~9월 4일 여름방학기획— 한국구미미술협회전 /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기온갤러리
8월 26일~8월 31일 제10회 인천-타카(이쓰타)현대미술 국제교류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절
8월 26일~8월 31일 그림대전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8월 26일~8월 31일 수인전소재철교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8월 26일~8월 31일 개지스문명탐사프로젝트1부 인도에서 만난 사람들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시절

| SUN | MON | TUE | WEN | THU | FRI | SAT |
|---|---|--|--|--|---|--|
| 7 | 1 | 2 | 3 | 4 | 5 | 6 |
| 2011 인천음악제 (The Butterfly Lovers) 오후 3시, 7시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5천원, S석 3천원, A석 2천원 (사)인천음악협회 ☎873-7772 | 청소녀를 위한 한 여름밤의 음악회 (Love Dora)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5천원 인동장소닉오케스트라 ☎888-0807 | 청소녀를 위한 세계타카기 오케스트라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명 (주)엔터테인먼트 ☎1588-2341 청소녀를 위한 진정한 기타음악오케의 여행 오후 7시 30분 오후 5시, 7시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명 인장7티오케스트라 ☎513-7087 | 10 오케스트라가 드리는 최고의 사랑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말레니앙스포니오케스트라 ☎026377-1250 2011 리아선과 함께하는 여름방학 특선연주회 오후 5시, 7시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명 리머47티오케스트라 ☎765-7839 미친미국장제행악극 극장이 불자 (개입의 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어린이 1만 5천원(동반성인 5천원) ☎500-2000 | 11 어린이극장제행악극 극장이 불자 (개입의 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어린이 1만 5천원(동반성인 5천원) ☎500-2000 | 12 가톨릭지컬 '디보와 슈바벤드'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2만5천원, S석 2만2천원, A석 1만6천원 (주)하늘이메티 ☎688-6675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TACT, PERFORM[0] 오후 7시 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초대 ☎1588-2341 어린이극장제행악극 극장이 불자 (개입의 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어린이 1만 5천원(동반성인 5천원) ☎500-2000 | 13 가톨릭지컬 '디보와 슈바벤드'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2만5천원, S석 2만2천원, A석 1만6천원 (주)하늘이메티 ☎688-6675 제18회 인천올림픽 양산품 87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7천원 인천제프리닝양산품 ☎424-717 청소녀를 위한 (비파하이드의 스토리뮤직) 오후 5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R석 1만5천원, S석 1만원 ☎500-2000 어린이극장제행악극 극장이 불자 (개입의 왕자) 오전 11시, 오후 2시 부평아트센터 블루리극장 어린이 1만 5천원(동반성인 5천원) ☎500-2000 |

| | | | | | | |
|---|--|--|---|--|---|--|
| 14 제20회 청소녀음악회 오후 5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3천원, 청소년 5천원 ☎인천광역시 440-2216 SUMMER FESTIVAL 광나리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바레 - 카르멘)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3천원, S석 2천원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5천원 ☎1588-2341 SUMMER FESTIVAL 세밀레 앙상블 연주회 오후 5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 15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식 오전 10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3천원, 청소년 5천원 ☎인천광역시 440-2216 SUMMER FESTIVAL 광나리와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콘서트 (바레 - 카르멘)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3천원, S석 2천원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5천원 ☎1588-2341 SUMMER FESTIVAL 세밀레 앙상블 연주회 오후 5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 16 SUMMER FESTIVAL 청소녀를 위한 음악회 (여왕, 백 피코트) 오후 5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명, 2천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SUMMER FESTIVAL 비너스그룹 퍼포먼트 연주회 오후 5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 17 SUMMER FESTIVAL 카르멘 비너스 (4인) 생악기 하프Story - 다모 (프로시스) 오후 2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명, 2천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SUMMER FESTIVAL 트리오 베베 연주회 오후 5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황금토끼 오후 8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리니베이션의 지구수비대 오전 10시30분, 11시20분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세리제를 전석 3천원(단체 1만원) 교육극단 보물상자 ☎819-1002 | 18 SUMMER FESTIVAL 인형시립합창단 제22회 정기연주회 (백조의 왕자, 음악회)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제프리닝악단 ☎1588-2341 SUMMER FESTIVAL 인천시립교향악단 실내악 연주회 오후 5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 19 SUMMER FESTIVAL 인천시립교향악단 기법연주회 오후 7시, 3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제프리닝악단 ☎1588-2341 황금토끼 (백조의 왕자)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1만5천원 플라스기회 ☎031-294-4232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의 (여성)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 | 20 SUMMER FESTIVAL 백성이 있는 세계의여행 오후 7시, 15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1천 1만명, 2천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유지컬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플라스기회 ☎031-294-4232 황금토끼 인천시립무용단의 (여성)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전석 6천원, 학생 무료 ☎760-3455 |
| 21 SUMMER FESTIVAL 스페인 릴레니움 합창단 오후 3시, 6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1천 1만명, 2천 5천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588-2341 유지컬 (별가넷은 인공님) 오후 1시, 3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5천원 플라스기회 ☎031-294-4232 영도국악양성공연 '별무' 오후 7시 소나기프로젝트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초대 ☎인천광역시 518-1511 오리지널 (난바벌 피코트스, 난타) 오후 3시, 6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R석 5천원, S석 4천원 ☎503-0108 아리나(난치) 청소녀 교향악단 제4회 정기연주회 '인생 1만년과 함께 하는 연락음악회' 오후 6시 / 전석 5천원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세리제를 ☎아리나 청소녀 교향악단 010-6345-2904 | 22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축개회를 위한 한 여름 예술제 오후 3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초대 ☎405-4853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인도광역시지부 | 23 Oh, Happy Day! 제22회 Young Artists Concert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초대 ☎대인고등학교 562-6316 | 24 라바리의 필레라 이야기 오후 7시30분 부평문화사방방 전석 3천원 ☎507-5986 | 25 제22회 한국가톨릭사교리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7천원, S석 5천원, A석 3천원 ☎한국가톨릭교회원 612-1433 | 26 인천시립교향악단 제21회 정기연주회 (오라토리오 그리고 베토벤) 오후 7시30분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R석 7천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인천시립교향악단 ☎1588-2341 DITTO SPECIAL rectal series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초대 황금토끼 (오라차치—유전크리아)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주로 ☎420-2732 배장은 별빛의 '힘을 빌의 제2' 오후 7시30분 부평문화사방방 전석 3천원 ☎505-5985 | 27 프로테오 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전석 1만명 프로테오합창단 ☎819-4668 황금토끼 인천시립합창단의 (유지컬 합창 모음) 오후 7시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주로 ☎420-2744 |
| 28 영도국악양성공연 '별무' 가을 고백토리 오후 7시 / 초대 인천종합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 ☎인천광역시 518-1511 | 29 스페인 릴레니움 합창단 | 30 | 31 교통교육유지컬 '친구가 위험해' 오전 10시 30분, 11시 20분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세리제를 전석 3천원 ☎교육단 016-774-0014 | | | |





내일 인천을 위한 무대를 준비한다

배우에서 연출가로 윤철형

40여 년 전, 중구 동인천역과 신포동 일대의 생맥주집 로젠켈러, 별다방, 명다방, 역마차.... 당시 인천에 살던 젊은이들은 그 안에서 술 한 잔에 마음을 나누며 아름다운 시절을 보냈다. 70년대 정감있는 인천의 뒷골목을 배경으로 한 스토리 콘서트가 인천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올랐다. 공연명은 '지금 몇 시죠?'. 그 때 그 시절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용기 내어 건네던 '작업멘트'에서 비롯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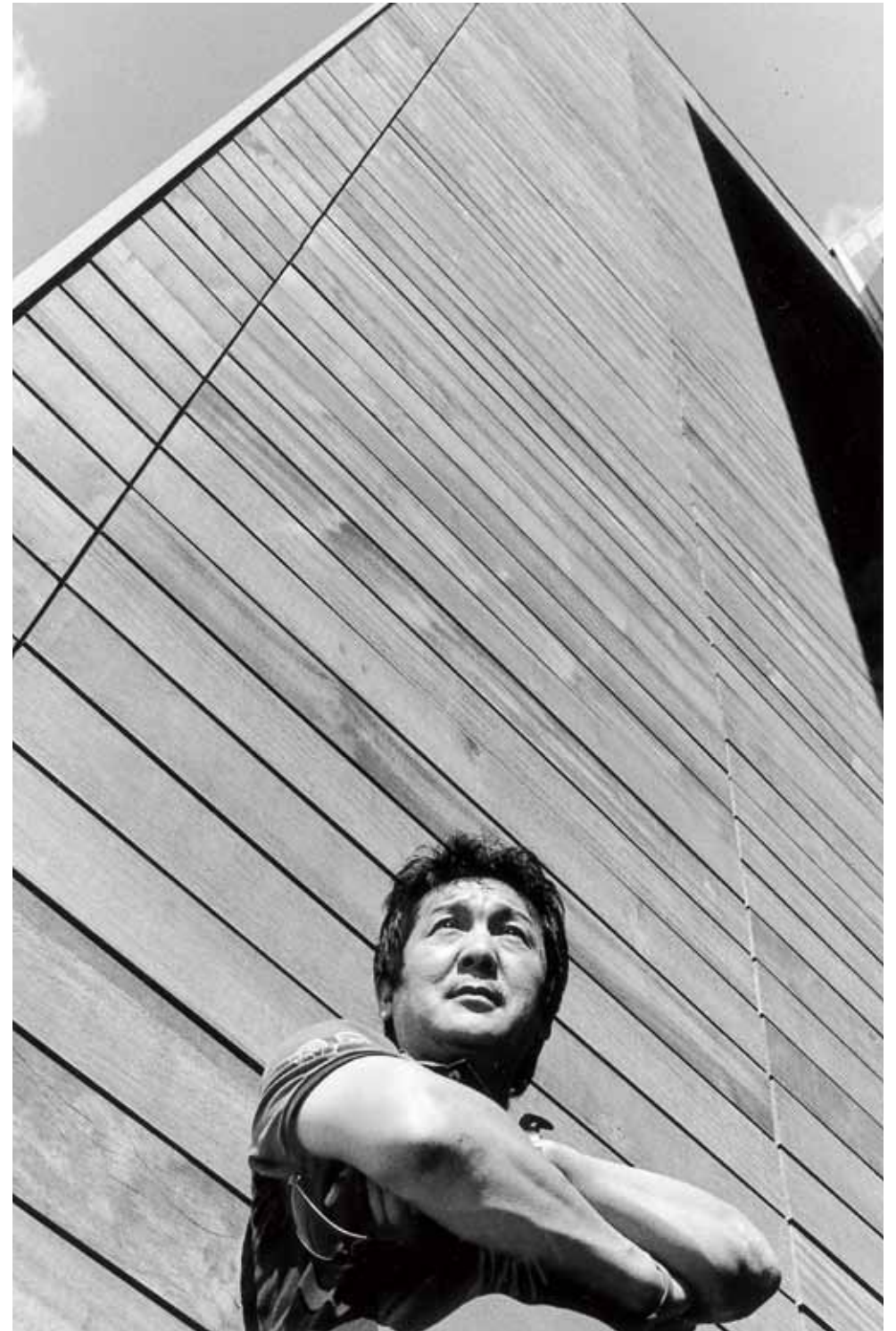
공연은 배우 윤철형이 등장하면서 시작한다. 추억의 드라마 '아들과 딸'에서 DJ 준으로 출연해 인기를 모았던 그가 별다방 DJ역을 맡았다. 장발머리를 연신 도끼빔으로 쓸어내리며 소녀의 맘을 설레게 했던 준이 오빠, 중년의 관객은 모두 십대가 된 듯 얼굴이 붉어진다. 이옥고 백영규, 이용복, 양하영 등 당시 인천 무대에 섰던 가수들의 진솔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추억과 그리움이 깃든 따사로운 음악이 모두의 마음과 마음에 다리를 놓는다.

당시의 기억은 배우 윤철형에게도 특별하다. 그는 송의동에서 태어나 인천고와 인천체대를 졸업하고 줄곧 인천에 살아 온 '인천사람'이다. 그 역시 동인천과 신포동 일대를 누비며 생애 가장 빛나는 시절을 보냈다. 그리고 나이 오십이 넘는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 "인천에서 태어났으니 인천에 뿌리를 내려야죠. 서울에서 한 2년 살았지만 고향이 그리워서 다시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1984년 MBC 16기 텔런트로 데뷔해 '아들과 딸', '태양의 남쪽', '신돈'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는 말초적이지는 않지만 은근히 꼼꼼한 매력이 있는 배우다. 하지만 연기자로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도 뜨거운 가슴을 채울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현재 연출가라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그가 대표로 있는 큐브 씨어터는 이재포, 맹상훈, 김형일, 김정균 등 탄탄한 연기력을 갖춘 중견텔런트로 이뤄진 극단이다. 최근 삶의 눈물과 웃음이 담긴 공연 '코미디 클럽에서 울다'를 부천 경기아트홀 무대에 올려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배우에서 연출가로 성공적으로 변신한 그의 소망은, 언젠가 공연다운 공연으로 인천 무대에 당당히 서는 것이다. 이유는 단 하나, 태어나 자라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이곳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인천을 생각하며 힘을 얻고, 내일 인천을 위한 자신의 무대를 묵묵히 준비한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노래로 ‘코리안 드림’ 꿈꾼다

필리핀 싱어 그레이스

노래는 삶과 일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된다. 긴장하여 움츠린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하루의 고단함을 푸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라이브카페에서 감미로우면서도 파워풀한 음성으로 올드 팝을 노래하는 이방인 그레이스(33, 필리핀). 그녀의 가창력은 이미 주변에 알음알음 알려져 노래를 듣기위해 찾아오는 손님도 많다. 언더그라운드계의 스타가수라고나 할까. 가족이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고, 아버지로부터 음악적 감성과 훈련을 받아 가수로서 재능이 많았던 그녀는 인천에서 가수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다.

“좋아하는 노래도 마음껏 부르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호흡하는 것을 느낄 때 정말 노래할 맛이 납니다. 좋은 노래, 편안한 노래를 선사하기 위해 매일 1시~1시 30분 정도 한국어와 한국어 노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일하다 한국에 왔다. 인천에 온 지 2년이 좀 못된다. 다른 아시아계 외국인들처럼 그녀 역시 ‘코리안드림’을 꿈꾼다. 필리핀보다 경제사정이 나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고향에 계신 아픈 어머니의 치료비와 동생의 학비를 보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땀 흘린 삶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리고 있다. 밤에는 직업가수로 낮에는 학원 강사로 인천에서의 삶을 잇고 있다. 학원에서는 영어말하기, 대화방법 등을 세심히 가르치는 밝고 친절한 영어강사로 활동한다. 그레이스는 인천 내 필리핀사람들의 커뮤니티 활동에도 열심이다. 지난 6월 열린 필리핀데이에선 메인MC를 맡아 프로그램 진행을 주도했고, 9월 열리는 필리피노 뷰티&브레인콘테스트에서도 사회를 맡아 행사를 이끌 예정이다.

그녀가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남모른 아픔도 많았다.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왔지만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안 맞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고독과 고통의 시간을 견뎠다. 게다가 매니저를 잘못 만나 8개월 동안 월급이 떼이기도 했다. 그래도 그녀는 한국을 사랑하고 인천을 좋아한다.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희망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한국학생들을 위한 영어스쿨 사업을 하고 싶은 장래 희망을 키우고 있다.

글 이용남 본지 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송 시장, 경기도서 특강
인천과 경기도의 협력 강조

송영길 시장은 지난 7월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포럼 특강강연을 통해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강연에서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을 어떻게 확충하느냐'에 대해 인력문제(출산, 보육, 교육, 고령화), 함께 가야 행복(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고용의 유연안전성, 사회안전망확충), 정공법(세수증대, 세출조정, 국민연금), 남북경협을 통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천의 추진전략인 ▲사람에 대한 투자 ▲신성장동력산업확충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조성 ▲인천-개성-해주 삼각 산업벨트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송 시장은 경기포럼 초청강연을 마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애들 밥 안 먹이는 게 보수가 아니다'라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무상급식에 대해 김 지사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이번 강연은 지난 7월 18일 김문수 경기지사가 인천시청을 방문, 인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 대한 '화답'으로 '핑퐁특강'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인천에서 가진 특강에서 '서해안 시대의 동반자, 경기-인천'이라는 주제로 "수도권이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서울, 경기, 인천이 일이 바쁜데 앞으로 더 긴밀하게 하나의 세계적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 상당한 협력을 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경기와 인천을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공동 협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구축 ▲수도권 규제 개선 공동대응 ▲말라리아 방역물자 등 대북지원 협력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3065

잠자리생태관 국내 최초 개장

부평구는 지난 7월 19일 인천나비공원에 잠자리생태관을 국내 최초로 개장했다.



구(區)는 공원 야생화단지 주변에 176㎡ 규모의 생태관을 조성, 수생·다육·허브식물 총 40종과 함께 잠자리를 전시할 계획이다. 생태관에서는 고추잠자리, 뽕잠자리, 왕잠자리 등 5종류의 잠자리 1천여 개체를 볼 수 있다. 인천나비공원은 매주 월요일 휴관이고 입장료는 무료다.

문의 : 잠자리생태관 509-8820

인천관광공사 '보물섬 랠리 이벤트'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인천 앞바다 섬 10곳을 둘러보고 경품을 받는 '보물섬 랠리 이벤트'를 연다(www.into.or.kr). 이벤트는 관광공사가 지정한 백령도, 덕적도, 자월도, 대이작도, 영흥도, 석모도, 강화도, 무의도, 모도, 장봉도 등의 보물을 찾아 임무를 마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인증샷'과 여행 후기를 공사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공사는 선착순으로 5천명에게 사진 1장 당 1만원 가치의 선물을 나눠준다. 5장 이상 등록한 관광객에게겐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카메라를 준다.

문의 : 인천관광공사 220-5000



인하대와 바이오에너지 기술 특허 출원

우리시와 인하대 해양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연구단이 해양에서 바이오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 국내·외에 특허 출원했다.

이 기술은 반투과막을 이용한 미세조류 대량배양장치가 핵심이다. 지방을 많이 함유한 미세조류를 반투과막 반응기 안에서 키우고, 바다에서 영양염류가 꾸준히 반응기안으로 유입되어 바이오디젤의 원료인 지방이 축적되면 이를 수확하는 방식이다.

시와 인하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가 공모한 해양생명공학사업에 응모해 선정됐으며, 해양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개발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국비 490억원, 시비 30억원, 대학 및 기업 180억원 등 총 7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342



2014 AG 서구 주경기장 국비지원 건의

우리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7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국비보조금 확보 등을 건의했다.

시는 서구 연희동에 새로 짓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의 총 사업비 4천900억원 가운데 30%인 1천47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에 내년도 국고보조금 2천620억원 전액 지원을 건의하고 선투입 사업비 가운데 국비 3천600억원을 지방채로 우선 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2천1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에도 국비가 지원돼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국제회의장과 문화행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가 최근 변경을 승인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업계획상 인프라 관련 총 사업비는 1조9천447억원이며 시는 국비 지원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문의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440-4131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지원

우리시는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7월 22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이안부와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조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주)이안부는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분양금 중 10% 범위 내의 금액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문의 : 경제수도추진본부 440-4973

서해5도 평화협력지대로 조성

우리시는 국토 최북단 서해5도를 평화협력지대로 조성하기로 하고, 천혜의 생태자원과 고유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시는 서해5도 뿐만 아니라, 서해지역 섬에 대한 평화의 섬 이미지 향상을 위해 평화브랜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대형여객선 조기 도입과 백령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기 추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국비지원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의 : 시 대변인실 440-3065

방통위 디지털방송 전환 협약 체결

우리시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내년 말 아날로그 TV방송 종료를 앞두고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등이 디지털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취약계층 TV실태 조사, 지원신청 접수, 디지털 전환 홍보 등을 담당한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신청을 8월 1일부터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문의 : 시 정보화통계담당관실 440-3012



인천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와 간담회

송영길 시장은 지난 7월 13일 창신금속 등 인천 개성공단 입주기업협의회 회원업체 CEO를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남북경협사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 시장은 이날 재활용 중고자전거 2차분 100대를 인천개성공단 입주 기업협의회에 전달하고 개성공단 인천업체 CEO와 격의 없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간담회에서 나온 개성공단 인천 업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한 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국제협력관실 440-3362

인천-김포,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착수

우리는 김포시와 공동으로 인천-김포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인천~김포~강화, 인천~영종지구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의 버스정거장과 인천지하철 환승지점에 버스정보안내기 160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업비 25억여 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면 버스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줄고 지하철 환승도 한층 편해져 대중교통 이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시 건설교통국 440-3882

인천 의료관광재단 초대 대표에 김봉기씨

인천 의료관광재단은 재단 초대 대표에 김봉기(53) 한국관광공사 경영본부장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명지고, 경기대, 경기대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관광공사에 발을 디딘 후 일본 삿포로 지사장, 본부 기획조정실장, 마케팅본부장을 역임했다. 임기는 7월 19일부터 3년이다.

재단은 16개국, 32개 해외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쳐 오는 2014년까지 의료관광객 2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국 440-2732

계양산 주변 친환경 산책로 ‘누리길’ 조성

계양구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대에 친환경 산책로를 조성한다. 계양구는 국토해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 보도 산책로 ‘누리길’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돼 4억8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구는 오는 9월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한 뒤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도시계획국 440-4631



강화 내가초교 태양광발전시설 완공

강화도 내가초등학교에 시간당 5kW 용량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됐다. 내가초교는 이로써 월 평균 500여kW의 전력을 생산해 월 600~1천800여kW인 전기 사용량을 크게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자연 에너지의 효용성을 교육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설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제조업체(주)OCI가 학생들에게 체험을 통해 태양광 에너지의 원리와 필요성을 학습하고 지구 환경보전의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무상으로 설치, 기증한 것이다. (주)OCI는 오는 2015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내가초교를 비롯한 전국의 섬과 농어촌 지역 300개 초교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으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가초교에 설치를 완료했다.

문의 : 내가초등학교 932-5829

인천대공원 물설매장 개장

인천대공원 물설매장이 지난 7월 15일 개장했다. 물설매장은 124m 길이의 청소년슬로프와 50m 길이의 유아슬로프를 갖췄다. 슬로프 옆에는 가로 16m, 세로 30m의 수영장 2개를 설치해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다. 물설매장은 오는 8월 29일까지 운영되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이다. 특히, 지난 7월 29일부터는 매주 금·토요일에 한해 오후 10시까지 개장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어른 7천원, 청소년 5천원, 어린이 4천원이다.

문의 : 동부공원사업소 440-5822

공항버스 이용 민원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계산역에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111번 및 302번 버스 승객들의 출근시간대 증차 요구가 잇따르자 버스배차시간 이용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 오전 4시 계산역정류소를 방문했다. 위원회는 현장 확인 결과 새벽 5시에 출발하는 공항행 첫차를 타기 위하여 새벽 4시 20분부터 약 40여 분간 계산역 버스정류소에서 100여 명 정도가 대기하다가 111번 및 302번 첫차에 각41명 정원 승차 후 타지 못한 승객들은 다음차를 기다렸고, 이후 약 10분 뒤 302번 2대가 출발하였으나 정원 초과로 미탑승 승객이 생겼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부터는 승객이 감소해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현장점검을 마쳤다. 위원들은 첫차 출발 전 대기 승객으로부터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 관계자와 문제점이 무엇인지 논의했고, 710번 환승가능사항 홍보 및 배차조정 등 해결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어려운 이웃돕기 쌀 전달식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장을 비롯한 이성만, 이재병, 강병수, 차준택, 이수영 의원은 지난 7월 5일 부평구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돕기 쌀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류수용 의장은 서순길 청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16명으로부터 기증받은 백미 810kg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증자 내역과 함께 홍미영 부평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제6대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의회개원 20주년 및 제6대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송영길 시장과 시 간부 공무원, 나그네 교육감과 공사·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 현지시찰

인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를 방문해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시설현장을 점검했다. 인천환경공단 송도사업소는 현재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및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실내수영장, 스쿼시장, 골프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전용철 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산업위원들은 현안사항 보고 후 음식물자원화시설 처리방법 변경, 폐열공급의 가격, 스포츠센터 활성화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하였고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모든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단 환영

인천시의회 류수용 의장, 김기홍 제1부위원장,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는 세 번의 도전 끝에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조양호 평창유치위원장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진선 특임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으로 이뤄진 평창 유치 대표단의 귀국 환영행사에 참석해 동계올림픽 유치의 성공을 축하했다. 시의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4년 후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하는 데 따른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온 국민의 힘을 결집할 것을 다짐했다.

| 인터뷰 | 류수용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낮은 자세로 ‘시민과 소통’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61, 부평구 제5선거구)은 인천사랑이 지극하다. 지역 행사에 참여하면 ‘내사랑 인천’을 구호로 외칠 정도로 시민을 사랑하고 지역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다. 류 의장은 기초의회에서 4선을 역임한 후, 제6대 의회 시의원으로서 입성하는 등 영역을 넓혀오고 있기에 제6대 전반기 의회를 시민과 소통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에 방점을 찍겠다고 다짐한다.

류 의장은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6대 의원들이 실력도 있고 전문성도 높은데 실질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의장 취임을 계기로 의원들이 마음껏 전문성을 살리고 실력을 100%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제6대 의회가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를 자주 열어 전 의회와의 차별성을 보여준 것처럼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차원에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돕고 정책의회로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남은 전반기 의정활동 방향도 시민과의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시민생활을 위협하고 불편을 주는 민생현장은 우선적으로 직접 찾아보고 함께 고민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 의장은 지역의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자연은 개발보다는 있는 그대로 잘 사용한 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기 때문이다.

류 의장은 시 집행부와는 관계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지만 견제와 감시의 역할도 게을리하지 않을 생각이다. 시의 주요정책 사업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원들과 국회를 방문, 국비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연계해 인천과 평창의 성공을 위한 ‘원-원’정책에 함께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의회와 공조해 서로 도우며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류 의장은 시의회가 더 몸을 숙이고 문턱을 낮추는 데도 힘쓴다. 시민들에게 의회의 시설을 개방한 것은 물론 의원 가족들을 초청 시의회 청사를 견학시킬 생각이다. 의회에서 무슨일을 하고, 의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에 가까운 가족부터 의회시설을 보여주고, 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려나갈 생각이다.

류 의장은 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처럼 시의원을 감시하는 것은 시민이라며 시의회가 바로갈 수 있도록 시민이 지켜주고 질책해 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또 초심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격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위원회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넓고 사문화된 조례 대대적 정비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자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가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경우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거나 폐지해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구성됐다.

특위는 지난 8개월간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것으로 판단된 조례 17건을 발굴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였고, 남은 기간엔 13건을 점검하여, 총 30건의 조례를 정비한다. 정비된 조례들은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화된 사항, 주민이익을 침해하는 사안들이다.

이번 특위활동에서 특기할 만한 조례개정 사항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 연령과 일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부분이다.

특위는 9월 공식 활동이 끝남에 따라 남은기간 동안 한번의 회의가 남아있고, 13건의 조례를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해 개정 및 폐지를 완료한다. 그간의 활동결과는 보고서로 채택해 발간할 예정이다.



| 인터뷰 | 정수영 조례정비특위 위원장

“조례제정까지 권한 확대를”

“넓거나 사문화된 조례개정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활력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수영 위원장(43, 남구 제5선거구)은 지난 8개월간 수많은 조례들을 검토하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준 조례 30건을 발굴했다. 이중 6건은 폐지되고, 나머지 24건은 개정된다.

“제6대 조례특위는 지난 제5대때 특위와 달리 주민이익을 침해하는 사항, 특정단체 지원 조항 삭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현실성 있는 조례 개정해 노력한 것이 큰 성과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조례특위가 앞으로 정비만이 아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를 많이 발굴해서 해당 상임위에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조례특위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시 집행부의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이번 조례정비에서 같이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가 사치품으로 모던^{Modern}세 부과

세계적으로 선풍기가 처음 출현한 시기는 1600년대라고 한다. “천장에 매달아 놓은 추의 무게를 이용하여 기어장치의 회전축을 돌려서 한 장으로 된 커다란 부채를 시계추 모양으로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장치”였다고 한다. 그 후 태엽을 감아 사용하는 오늘날의 탁상선풍기형이 출현한 때가 1850년대였다.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웨스턴하우스(미제, 100년 전)

전기식 선풍기, 미국 에디슨이 고안

일설에는 최초의 기계적 장치를 가진 것으로는 1800년대 초, 중동에서 쓰인 ‘푼카’라는 선풍기와 1831년 러시아인 알렉산드르 사블루코프가 발명한 에어 펌프(Air Pump) 선풍기, 그리고 산업혁명 후 공장에서 물레바퀴의 동력으로 벨트를 돌려 바람을 일으키도록 한 선풍기가 있었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전기식으로 된 선풍기는 미국의 에디슨이 고안해 낸 것이다. 미국에서 선풍기가 널리 보급된 것은 1890년대 말에서 192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선풍기가 도입된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다른 외래 개화 문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선풍기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선풍기의 도입은 아마도 개항과 함께 입국한 서구 각국의 외교관이나 상인들, 혹은 일인들에 의해서였을 것이며, 시기도 대략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일 것으로 추측된다.

“익일(翌日) 떠나 신가파(新嘉坡, 싱가포르)로 향하니 <중략> 일기가 장마 날 같아 울중(鬱蒸)하기 짝이 없고 식당에는 선풍기의 바람이 없으면 식사를 못할 지경이 되었나이다.”

“물론 염열(炎熱)을 퇴치하는 방법에는 <중략> 고루저각 위에서 선풍기를 놓고 빙당수(氷糖水)를 마시면서 기국(棋局)으로 오로(烏鷺)를 쟁(爭)하는 것도 그의 하나일지요.”

“조선호텔이나 명월관, 국일관에서 선풍기 바람에 감기들 근심을 하면서



구한말 부채(태극선)



풍속화 부채(1970년대)



일제 미쓰비시(1940~50년대)

점점옥수가 따라주는 얼음보다 더 찬 맥주를 마시는 그러한 풍류는 오직 소수의 부신(富神)의 선민(選民)에게만 태운 복이다.”

인용한 글 중 맨 앞의 것은 1922년 3월호 개벽 잡지에 실린 박승철(朴勝喆)의 기행문 ‘독일 가는 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8월호에 실린 야뢰(夜雷)라는 필자의 논설 ‘청량제(淸凉劑)’에서 발췌한 것이다. 마지막 글 역시도 같은 잡지 1923년 8월호에 실린 ‘서울의 여름’이라는 글의 일부이다.

글의 내용으로 보면 이때쯤은 선풍기가 도입된 후 이미 여러 해가 지나 일상 용품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던 것 같다. 필자들이 선풍기에 대해 별달리 낯설어 하거나 신기해하지 않고 덤덤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뒤의 두 필자의 글에서만 ‘선풍기 찬바람은 부자나 지체 높은 사람의 몫’이라는 뉘앙스가 풍긴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선풍기는 시일이 가면서 점차 시중에 널리 보급되었던 것 같다. 1926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는 선풍기의 원리에 대한 해설 기사를 싣고 있고, 1931년 여름에 들어서서는 설치 요령이나 사용 시 주의사항 같은 기사를 자세하게 일반 가정 상식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선풍기 양산 체제 돌입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선풍기가 여전히 고가 사치품이라는 인식도 깔려 있었던 것 같다. 같은 신문 1931년 1월 15일자에는 ‘1931년식 모던(Modern)세(稅)’라며 ‘경성부에서 선풍기, 축음기, 라디오 같은 사치품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기사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선풍기세’는 광복 이후인 1946년 9월, 미 군정장관이 법령 제109호를 발행 폐지할 때까지 부과되었다.

국내에는 1960년에 비로소 선풍기 양산 체제에 돌입했지만, 1970년대까지는 여전히 고가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거슬러 올라가 1931년 당시 경전(京電) 직원 정복을 차려입은 자가 수리를 빙자해 선풍기 3대를 사기한 사건에서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다방, 미군부대 창고, 심지어는 국무회의실 선풍기까지도 절도의 대상이 되곤 했던 것이다. 귀하고 값나가는 물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선풍기에 사용되는 전기를 훔치는 곧 도전(盜電) 기사도 심심치 않게 오르곤 했다. 일례로 전시(戰時)에도 그런 소행이 있었는지 1951년 9월 24일 민주신보가 개탄하고 있는데, 특히 ‘도전하는 종목이 주로 선풍기, 냉장고, 전열 네온사인 동력’이라고 지적한다.

장마가 그치면 뒤이어 찜통더위가 닥치리라고 한다. 그나마 이제 서민들이 이 혹서를 견뎌낼 수단은 ‘수고(手苦)로운’ 부채질 대신에 시원하게 땀을 날려 보낼 수 있는 ‘기계부채’ 선풍기뿐일 것이다.

별난 역사, 별난 물건 시리즈에 게재된 선풍기 관련 물건 및 사진은 중구 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근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희귀한 근대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료는 성인 2천원, 학생 1천원. 문의 764-1988



희망을 키우는 ‘책 나눔 운동’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지금의 나를 만들어 준 책. 책을 통해 깊은 감동을 느끼고, 영혼의 울림을 받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유익하게 읽었던 감동적인 책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공유하는 도서기증 운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책읽는 도시인천’ 사업의 일환인 ‘나로부터 도서기증운동’은 지역명사, 공사, 공단부터 시작해 도서기증운동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그 결과 지난 7월 8일 울목도서관 개관식에서 송영길 시장은 그동안 자신의 마음을 울렸던 손때묻은 책 150권을 기증했다. 지역의 원로이자 명사인 지용택 새얼문화이사장도 80여 권의 장서를 도서관에 기탁했다.

공무원, 공사, 공단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총 5천여 권이 넘는 도서가 기증되었으며 지금도 각계 각층에서 책 기증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추홀도서관에 올해 현재 시민이 기증한 도서는 832권, 작년엔 4천895권이 접수됐다. 기증한 도서 중 일부는 책이 필요한 곳에 기부된다. 지역의 명사들이 기증한 도서는 ‘○○○명사의 서재’로 이름 붙여진 뒤 다시 시민들에게 대출된다. 울목도서관 개관을 기념해 조성된 명사의 서재 1호점은 ‘송영길 문고’와 새얼문화재단 ‘지용택문고’다. 도서기증과 관련

된 정보는 시청이나, 미추홀도서관 홈페이지에 마련된 ‘인천지역 도서기증 안내서비스’를 보면 된다. 도서기증 기준·기증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고, 인천도서관협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증자료는 멀티미디어, 시청각자료, 일반도서, 학술도서 등 모두 가능하지만 출판연도가 일반도서 5년 이내, 기술도서는 2년 이내여야 한다. 단 개인문고 및 고서(희귀자료)의 경우 발간연도 기준은 없다.

시는 하반기에는 한여름밤의 낭송콘서트,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자원봉사자 대회 등 시민참여 도서기증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간다. 한여름밤을 수놓을 낭송콘서트는 8월 31일 개최할 예정이다. 낭송콘서트는 하반기 2~3회 열린다.

또 ‘책읽는 도시인천’ 만들기 활성화 차원에서 강화군 등 구군 및 공사 공직자와 임직원은 물론 구, 군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의 冊



행복의 조건

조지베일런트 | 프런티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도 법칙이 있을까?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하버드에 입학한 2학년 생 268명의 삶과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천재 90명을 72년간 추적하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과학적 데이터를 뛰어넘는 극적인 기록들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시적 깨달음을 전해 준다.



한국인의 마음

지상현 | 사회평론

이 책은 우리의 옛 미술품에 숨겨져 있는 한국인의 감성기질을 심리학으로 살펴보는 한국사람의 감성기질 탐색기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 온 집단에는 그 집단만의 심리적 기질이 생겨나고 유전된다. 그리고 그 흔적은 고스란히 미술에 녹아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인의 감성지도를 완성한다.



화폐전쟁 3.0

윤채연 | 다산박스

넓은 경제학 이론의 오류와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음모론을 파헤친 책. 대한민국 최고의 환율전문가로 꼽히는 윤채현 한국시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역사적인 화폐전쟁을 분석하고 미래 화폐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환율과 세계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독도 1947

전봉준 | 돌베개

2005년 독도가 일본령이 아닌 한국령임을 보여 주는 대일평화조약의 초안에 부속된 지도를 발굴한 이후 독도문제는 물론, 그것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과 일본 등 삼국관계에 대해 천천히 온 저자의 연구서다. 1947년을 중심으로 1951년까지의 삼국관계를 통해 독도문제의 본질을 고찰하고 있다.

주제별 추천도서

자료제공 인천시 미추홀도서관 440-6655

| 서명 | 지은이 | 출판사 | 책 소개 |
|----------|-----------|-------|---------------------------------------|
| 베스트셀러30년 | 정현백 | 동녘 | 우리가 사랑한 300권의 책 이야기 |
| 행복의 조건 | 조지 베일런트 | 프런티어 | 수십 년 생애를 그려나가는 인생과 행복의 조감도 |
| 예수평전 | 조철수 | 김영사 | 신격화된 예수가 아닌 인간 예수의 일대기를 재조명하다! |
| 여성의 역사 | 한기호 | 교보문고 |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가 몰랐던 인류 절반의 역사 |
| 화폐전쟁 3.0 | 윤채연 | 다산박스 | 운명을 건 머니 파워게임의 진실 |
| 바다의 비밀 | 미국국립해양대기청 | 지성사 | 바다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며, 해양과학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
| 기후다이어트 | 조나단 해링턴 | 호이테박스 | 인류의 어머니 지구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
| 한국인의 마음 | 지상현 | 사회평론 | 오래된 미술에서 찾는 우리의 심리적 기질 |
| 영문법론 | 조성식 | 해누리 | 경험을 토대로 영어에 대한 연구를 펼쳐내는 책 |
| 울림의 노래 | 오사라 | 영언문화사 | 오사라 시인의 시세계 : 물과 사랑의 의미 |
| 독도 1947 | 전병준 | 돌베개 |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
| 한국전쟁 | 한국역사연구회 | 휴머니스트 | 역사주의적 접근을 통해 한국전쟁을 새롭게 연구하다! |

이달의 인천작가



오사라

1950년 인천에서 출생해 현대문학(수필), 시문학(시)으로 1984년 등단했다. 주요 약력으로는 제8회 한국크리스찬문학상 대상 수상, 제10회 미국에피포도 문학상 대상 수상 등이 있다. 경력으로는 한국기독교문인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하였다. 대표 수필집은 〈석화(1984)〉이며, 〈햇살하나 가슴에 담고(1989)〉, 〈목마른 그대영혼(1992)〉, 〈위대한 침묵(1995)〉, 〈나무의 도시(1998)〉, 〈울림의 노래(2003)〉, 〈마음의 여행(2006)〉, ‘〈한·영 번역시선집 (2008)〉 등 다수의 시집을 집필했다.

뉴 아우디 A6 신차발표회, 송도와 연종도에서

아우디 코리아는 일본, 대만 등 아태지역(중국 제외) VIP 고객, 언론, 각국의 영업사원 등 1천6백60여 명을 초청해 프레스티지 중형 비즈니스 세단 '뉴 아우디 A6'의 아태지역 출시를 위한 딜러 교육 및 사전 시승 행사를 8월 1일~19일까지 한국에서 연다.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신차 발표를 위한 딜러 교육 및 사전 시승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차 출시 3~6개월 전에 각국의 VIP 고객 및 언론, 영업사원 등을 초청해 이뤄지는 국제적인 대규모 시승 행사다. 주로 열리던 유럽지역을 벗어나 한국에서 여는 것은 한국 수입차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고객 및 언론 시승회에서는 뉴 A6에 대한 소개 및 슬라럼 등 차량 성능 위주의 다이내믹 드라이빙 세션, 송도와 영종도를 오가며 한국의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행 위주의 시닉(Scenic) 드라이빙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번 송도, 영종도 시승행사는 경제자유구역에 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과의 향후 투자유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 문의 : 453-7343



손안의 인천



인천광역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천시미디어'를
서비스합니다.



'인천시미디어'를 보려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1.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2. QR코드를 스캔
3. smart.incheon.go.kr로 접속

<백Back투더 백100년 전 인천>전 개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100년 전 인천을 체험하는 특별전을 연다.

- 일정 : 7월 19일(화) ~ 9월 18일
- 장소 : 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 내용 : 근대도시로 발전하는 100년 전 인천의 특징, 서양식 건물, 채색사진, 외국인 등을 체험교구로 만들어 체험하는 전시 등
- 특별전 : 퀴즈 동서남북, 증기선 / 팝업북 만들기 등
- 문의 : 440-6750

2011 인천음악제 개최

사)한국음악협회 인천지부에서는 2011 인천음악제를 개최한다. 올해는 세계 최정상급의 중국 상해 발레단과 인천뉴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합동공연으로 중국 4대 민간설화의 하나인 양산백과 축영대(중국판 로미오 줄리엣)의 이야기를 발레로 구성했다.

- 공연일시 : 8월 6일(토) 3시, 7시 30분
8월 7일(일) 7시 30분(3회)
- 공연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주최/주관 : (사)한국음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 관 람 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 공연문의 : 873-7772 / 010-2217-3316

전자여권 발급 안내

전자여권은 여권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 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이다.

- 발급기관 : 인천시청 및 9개 군·구청(웅진구청 제외)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
- 근무시간 : 평일 9시~18시(점심시간 정상근무), 토요일 9시~13시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1매(3.5cm×4.5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군인신분증)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여권 포함)
- 여권수령시 지참물 : 신분증 및 접수증
- 문의 : 440-2477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취업의사가 확고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제출서류 : 등본, 사진 2장, 농협 통장사본, 최종학력증명서
- 훈련특전 : 수료시(출석률 80%) 교통비 지급(1일 2천500원)
-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선착순 접수
(필요 시 면접을 통해 훈련생 선발)
- 문의 : 469-1251

| 개강 | 과정명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교육시간 | 모집인원 |
|--------|---------------------|--|-----------------------------|------------------------|--------------------------------|
| 8월 29일 |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과정 | 품질경영개론, 품질경영공학, 품질경영시스템, 품질경영실무 등 <자격증 취득과정> | 8월 29일~ 10월 12일 (2개월) | 월~금 9:30~ 13:30 | 20명 (남자수강 가능) |
| 9월 1일 | AUTO CAD | 제도의 기본, 도면해독, 2.3차원 CAD, 금형설계 등 | 9월 1일~ 11월 29일 (3개월) | 월~금 9:30~ 13:30 | 25명 (남자수강 가능, 초대출 이상) |
| 9월 5일 | 회계사무원 양성과정 | 전산회계 1급 및 OA(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 9월 5일~ 12월 1일 (3개월) | 월~금 14:00~ 18:00 | 25명 |

청소년 집단 심리검사

인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자신의 성격, 적성, 흥미, 능력, 가치관 등에 대한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와 합리적 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검사 실시일 : 1차 - 8월 6일(토) 2:00~3:00 집단검사로 진행 / 2차 - 8월 20일(토) 2:00~3:00 집단검사로 진행
- 해석 실시일 : 상담자 배정 후 개별 연락, 일정 논의 후 해석상담 진행
- 대상 : 초등 5년 ~ 고3
- 내용 : 성격유형검사(MBTI, MMTIC) / 학습검사(MLST학습 전략검사) / 진로검사(진로발달, 진로탐색검사)
- 문의 : 721-2314

해양긴급신고 '122'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찾는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해양긴급신고 '122'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해양경찰청은 전국 272개의 해수욕장에 1천5백여 명의 해양경찰관과 수상오토바이 등 연안구조장비 160대를 동원해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긴급사고시 '122'를 활용하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을학기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연수문화원에서는 가을학기 문화학교 강좌를 연다. 문화교육에 관심있는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

- 강좌기간 : 9월 1일(목)~11월 29일(화), 3개월
- 기존회원 타강좌 및 신규회원:
 - ☞ 정보화교육(컴퓨터): 8월 11일(목) 10시부터
 - ☞ 문화강좌 및 특별지원: 8월 12일(금) 10시부터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 ☞ 연수문화원홈페이지 yeonsu.or.kr
 - ☞ 연수문화포털사이트 call.yeonsu.go.kr
- 인터넷접수 대행시간 : (월~금)10:00~17:00
(토)10:00~12:00
- 문의 : 821-6229

41기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미추홀문화회관은 다가오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알차고 실속있는 41기 가을학기를 준비했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

- 강좌기간 : 9월 1일~11월 23일(3개월)
개강 후 중도수강 가능
- 접수기간 : 8월 1일~9월 3일
- 장소 : 미추홀문화회관 - (구)인천여고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문의 : 765-0220, 0250 / www.mchart.co.kr

AG 서포터즈 문화교육 '아시아문화 맛보기'

인천국제교류센터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아시아문화 맛보기' 문화교육을 지난 4월부터 총 20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문화 맛보기' 프로그램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서포터즈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인천국제교류센터 홈페이지(www.icice.or.kr)에서 가능하다.

○ 문의 : 451-1773~4

| 일 정 | 장 소 | 주제 및 강사 |
|-----------------|----------------|--|
| 9월(화) 오후 4시 |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 삼천년의 무게, 인도의 카스트 제도 (정채성, 한국외대 교양학부 강사) |
| 16일(화) 오후 4시 | | 앗실람 알라이뽀! 아랍어 첫걸음 (김성연, 인천국제교류센터 아랍어 강사) |
| 23일(화) 오후 4시 | | 칭기즈칸의 나라, 몽골을 가다 (장장식,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원) |
| 30일(화) 오후 4시 | |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의 모자이크, 동남아시아 (신윤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해찬나래 신입생 모집

동구청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 방과후 교실 신입생을 모집한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지원을 바란다.

- 대상 : 중2(2학년만 모집)
- 운영시간 : 월~금(16시~ 20시 30분)
2·4주 놀토(9시~14시)
- 프로그램 :
 - ◇ 주중 - ·국어, 영어, 수학(수준별 학습)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개발(독서, 숙제지도)
 - 창의적 체험활동(아트클레스, 방송댄스, 모듬북, 생활체육, 영어연극 등 특기적성개발)
 - ◇ 주말 - 자원봉사활동(청소년인권, 환경캠페인), 진로탐색(직업체험활동, 성격심리검사, 기관탐방), 문화공연, 박물관, 농촌체험, 스키캠프, 체육대회, 여름 제주도 캠프
- 참가비 : 전액무료
- 문의 : 777~7942(내선4번)

계양국제어학관 9월부터 운영

계양구에 유아, 유치, 초등부 전문영어교육기관이 선보인다. 계양국제어학관은 계양구가 설립하고,(재)인천시국제교류센터가 운영한다.



- 정규강좌모집 : 8월 1일(월)~8월 19일(금)
- 개강 : 8월 29일(월)
- 신청방법 : 계양국제어학관 홈페이지(www.gglc.or.kr) 접속 후 회원가입하여 강좌선택

아울러 계양국제어학관 내 '토크하우스'에서는 계양구주민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클럽을 무료로 운영하며,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테마강좌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학부모들을 위한 홈스쿨링 영어특강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 문의 : 451-1733, 4

전통자수 이용 복주머니 만들기

해명단청박물관은 인천시 무형문화재 자수전수 조교 김영순님의 전시초대전및 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전시기간 : 8월 8일~8월 14일
- 체험일 : 8월 14일 (일요일)
- 체험내용 : 전통자수를 이용한 복주머니 만들기
선착순 20명(체험비 별도)
- 문의 : 868-5898

교통안전공단인천지사 청사 이전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는 교통안전업무의 활성화와 민원편의 제공 및 국민으로부터 더욱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초일류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사를 이전했다.
- 이전장소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 전화번호 : 833-5000

1946년 해외동포 귀환사진 최초공개
리뷰인천 여름호 발간

리뷰인천(발행인 조우성) 2011년 여름호가 발간됐다. 이번호의 눈길을 끄는 코너는 1946년 인천을 통해 귀환했던 해외동포들의 실상을 담은 회귀사진이다.

인천 최초로 공개하는 이 사진은 세계적인 무용가 최승희와 그의 남편 안막, 귀환 부녀자의 금품을 뺏앗는 중국여자 경찰관, 인천항에서의 디디티소독, 인천역에서 귀향열차에 오르는 장면을 실고 있다. 6·25전쟁 직후의 인천시 부평동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컬러사진들도 게재했다. 부평에 위치했던 미군부대의 모습과 당시 부평 사람들의 생활상, 지금 부평풍물축제의 원조격인 삼산동 농악대의 모습 등 진귀한 사진이 가득하다. 특집으로는 '송영길호 1년 이렇게 본다'로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실었고, '리뷰인천의 인물'에서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독자들에게 소개했으며, 소설가 김상렬의 '소향을 생각한다'와 강옥엽 인천시역사자료관 전문위원의 '자료속 인천 들 여다보기', '소성진중일지'편도 독자들의 흥미를 끌만한 코너다. 리뷰인천은 기간지로 정가는 1만원. 시중판매는 하지 않고 정기구독(3만5천원)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 구독문의 : 885-2320



역대 인천부사 후손을 찾습니다

인천도호부대제는 조선 세조 5년(1459년) 인천이 도호부로 승격하면서 행정중심을 이룬, 인천의 역사와 얼이 깃든 유서깊은 곳으로 매년 이날을 기려 나라님과 역대(태조 6년부터 융희 14년) 인천부사 3백55인의 업적과 덕을 기리는 제향의식이다. 금년부터는 역대 부사들의 후손을 찾아 제향의식에 헌관으로 참여, 의의를 되새기고자 후손들을 찾고있다. 관심있게 선조들의 해적이를 보고 역대부사 후손을 알고 있으면 아래로 연락바란다.

- 지침물 : 후손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표
- 기간 : 8월 1일~10월 10일
- 문의 : 인천시 문화재과 440-4470, 인천예총 866-2019

2011 송도세계문화축제 참여업체 모집

송도국제도시에 맥주와 문화가 만나는 '2011 송도세계문화축제'가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린다. 송도세계문화추진위원회와 경인방송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중국의 칭다오 축제와 어깨를 당당히 겨누는 세계적인 축제로 치러진다.

위원회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마실거리, 먹을거리, 알릴거리 관련 업체를 모집한다. 행사장은 방문객이 즐길만한 '어울림존', 맥주·전통주를 판매하는 '비어·막걸리존', 공개방송 등 이벤트가 펼쳐지는 '엔터테인먼트존', 세계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전시존'으로 나뉘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게 구성했다. 축제기간엔 경인방송의 릴레이 공개방송, 세대를 아우르는 라이브콘서트, 해계 전통음악 공연, 전세계 맥주전통주 체험, 미디어아트 등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문화이벤트를 진행한다.

- 입점문의 : 830-0603

인천대 평생교육원 2학기 학생모집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은 2011학년 2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재미있고 다양한 강좌가 마련되어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의 지원을 바란다.

-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8월 1일~24일
- 개강일 : 9월 5일(월)
- 접수 : 인터넷(www.cecui.com) 및 방문
- 교육장소
 - 제물포캠퍼스 : 남구 도화동 177번지 성지관
 - 강화캠퍼스 : 강화군 강화읍 관월이 175-15
- 문의 : 제물포캠퍼스 : 835-9563~6
강화캠퍼스 : 932-1391

2011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일정

★인천펜타포트뮤직인아츠페스티벌

| 프로그램 | 기간 | 장소 |
|------------|----------------------|----------------------|
| 오픈스테이지 | 7월 15일(금)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특설무대 |
| 햇아이템 인 코리아 | 9월~10월 | 관내 실내외 공연장 |
| 메이드 인 펜타포트 | 9월~10월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 아시아스포츠타이트 | 9월 17일(토)~ 9월 18일(일) | 부평아트센터 |
| 펜타포트 클로징파티 | 10월 8일(토)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특설무대 |

★인천펜타포트프린지페스티벌

| 프로그램 | 기간 | 장소 |
|--------------------|------------------------|--------------------------|
| 음악정원 프린지 오픈스테이지 | 7월 17일(일) | 자유공원 중앙광장 |
| 프린지 누리길 | 7월 23일(토) 7월 24일(일) | 자유공원, 인천아트플랫폼, 신포동 쉼터 |
| 프린지와 떠나는 바캉스 | 7월 30일(토) 7월 31일(일) | 인천터미널 광장, 인천메트로 내 역사 |
| 펜타포트 프린지원정대 | 스페셜 번개쇼 | 8월 14일(일) 부평역 신교통광장 |
| | 소곤소곤 버스킹 | 8월 20일(토) 인천터미널 광장 |
| | 버스킹 인 아고라 | 8월 21일(일) 부평 문화의 거리 |
| 나스락페스티벌 | 8월 20일(토) | 부평역 신교통광장 |

★한류관광콘서트

| 프로그램 | 기간 | 장소 및 내용 |
|------|----------------------------|---|
| 상설행사 | 8월 13일(토) 10:00~22:00 | •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 • 인천시 관광 홍보부스 및 이벤트 운영 |
| 사전행사 | 8월 13일(토) 18:00 ~ 19:00 | •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 별도공간 • 출연가수 현장 인터뷰, 사진 촬영 등 |
| 콘서트 | 8월 13일(토) 19:00 ~ 21:30 | •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 • 한류스타가 총 출동하는 대형 페스티벌 |

★세계청소년동아리 문화축제

| 부문 구분 | | 부문 | 장소 |
|----------------|-----------|------------------------|------------|
| 중등부문 (중·고생) | 공연 부문 | 음악 | 인천대학교 |
| | | 댄스 | |
| | | 무대공연 | |
| | | 전통문화 | |
| | 비공연 부문 | 영상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 | | 전시 | |
| 백일장(시) | | | |
| 초등공연부문 | | 공연이 가능한 모든 초등학교 동아리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

인천을 알아가는 재미가 가득!

2011 인천국제모터보트대회가 8월 7일, 월미도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된다. 총 10여 개국 국내외 선수들이 참가하여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프리스타일 묘기시범 등 다양한 경기를 선보인다. 또 인디밴드 공연과 비보이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다른 부분은 모두 다섯 곳입니다.



7월호 '다른 그림 찾기' 정답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정답자 가운데 열 분을 추첨해 알립니다.



김음전 | 중구 도원동

이현정 | 연수구 송도동

박성원 | 중구 운서동

김진익 | 계양구 효성1동

임승아 | 중구 관동

윤월선 | 계양구 작전동

서정숙 | 남구 주안2동

정해숙 | 연수구 연수2동

김민영 | 남동구 구월동

박광민 | 중구 운서동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굿모닝인천>은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 다른 그림 찾기에 응모하세요. 인천을 주제로 다른 그림 찾기 문제를 만들어 주는 것도 환영합니다.(단, 정답은 우편으로만 받습니다.)
- 사진도 공모합니다. 주제는 자유입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독자엽서 당첨자 ※ 독자엽서에 참여한 일곱 분을 선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배금례 | 부평구 갈산동

송재영 | 의정부시 민락동

홍성훈 | 서구 검암2지구

윤순희 | 계양구 박촌동

김경숙 | 서구 마전동

이영신 | 부평구 부평1동

박주현 | 서구 석남1동



김치 찰작



와~ 큰 총(?)이다!

초등학교때 아버지와 함께 왔던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세월이 흘러 아이와 함께 그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이는 큰 총(?)과 전투기 등을 보며 마냥 즐거워 합니다.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다시 한번 찾아가 한국전쟁과 인천의 역사를 알려 주고 싶네요.

_ 박서우 시흥시 하중동



바둑 꽃이 활짝~

초등학교 1학년 '절친'입니다. 하고 후에 바둑알을 두고 이리저리 가지고 놀더니 예쁜 꽃을 만들더군요. 아이들의 놀이 문화는 참 다양하고 창의적입니다.

_ 한경숙 계양구 이화동



아름다운 인천대교 일출

이제는 매우 유명해진 인천대교 일출 명소. 남편을 따라 영종도에 갔다가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아주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더군요. 가까운 서해에 이렇듯 아름다운 명소가 있어 참 좋네요.

_ 김중숙 시흥시 월곶동



장원



어린시절 갯벌의 추억

어린시절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 영종도로 놀러가곤 했습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이고 바다가 매립되면서 사라진 곳이 많았습니다. 사진 속 장소도 한때 바닷물이 드나들던 곳으로, 어린시절 낚시 하고 바지락도 캐면서 열심히 놀았지요. 이제는 추억 속에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_ 신윤경 서구 신현동



말 잘 듣는 청개구리가 되어요!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우리 딸. 하지만 그러면서도 장마철에 장화 신고 우산 들고 유치원에 가는 모습을 보면 '다 컸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말 잘 듣는 청개구리가 됩시다!"

_ 이순정 남동구 만수4동

보내실 곳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문의 ☎ 440-8305) 홈페이지(goodmorning.incheon.go.kr)와 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영문사이트), (koreantweeters.com/smartincheon, 한글사이트)로도 받습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 장원과 퀴즈문제 작성은 각 3장)을 드립니다.

부모, 형제도 안 서주는 보증



글 김성균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신용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으로 한다. 이 같은 신용보증은 중소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경제적인 효과는 이미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증명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증가한 신용보증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은 그 의미가 크다.

이렇듯 신용보증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을 이용하기 꺼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많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빚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옛 속담처럼 보증을 지극히 위협하며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 형제도 안 서주는 보증, 재단에서 해 드립니다’는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문구다. 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모, 형제도 안 서주는 보증’을 해 주어 지난해 3만3천637건에 6천328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6천억 원 규모의 보증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재단이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특히 올 4월부터 시작한 ‘인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인천시와의 협약을 통해 매년 2천500억원 규모로 4년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력은 있으나 운영자금에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5천만원에서 6억원까지 지원해 지역경제의 불씨를 당기고 성장을 이끌리라 기대한다.

보증은 나의 천직이고 숙명이다. 나는 보증기관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후 현재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취임한 지 다섯 달 정도가 지난 현재, 짧은 기간이지만 재단의 기틀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한 나는 송도국제도시에 터전을 잡고 새로운 고향에서의 삶을 만끽하고 있다. 인천은 오감을 충족시킬 만큼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다. 신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하루도 머무르지 않고 발전하는 현재 진행형의 도시. 우리 재단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보증의 긍정적인 힘을 전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보증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 재단 직원들은 인천 곳곳을 누빈다.



公·共

거리의 벽화는 그려지는 순간 ‘공공미술’이 된다. 공공미술은 창작을 넘어 참여와 연대이다.

벽화가 그려진 집에 사는 사람이 행복할까.
벽화가 그려진 집을 보는 사람이 행복할까.

벽화는 우리를 사유(思惟)케 한다.

글·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

① 전동 옛 인천여고 ② 창영동 ③ 배다리 ④ 만석동
⑤ 송의동 옛 전도관 ⑥ 십정동 ⑦ 부평동

